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桐溪 鄭蘊의 歷史認識과 詩世界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高 恩 順

2016年 2月

桐溪 鄭蘊의 歷史認識과 詩世界 研究

指導教授 金 相 助

高 恩 順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高恩順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12月

A Study on Historical Perspective and Poetic
Style of Donggye Jeong On

Ko Eun-so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cember, 2015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Sang-jo,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序論.....	1
II. 桐溪 鄭蘊의 社會的 處지와 現實認識.....	9
1. 동계의 社會的 處地.....	9
2. 동계의 現實認識.....	13
III. 桐溪 鄭蘊의 歷史認識과 詩.....	18
1. 벼슬의 시작과 挫折.....	18
2. 인조반정의 수용과 天命論.....	30
3. 호란과 명·청 교체기와 華夷論.....	42
IV. 結論.....	55
※ 참고문헌.....	58
※ ABSTRACT.....	60

I. 序論

鄭蘊은 1569년(선조 2년)에 태어나서 1641년(인조 19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자는 輝遠, 호는 桐溪, 제주도 유배 시 스스로를 부른 鼓鼓子 등이 있다. 본관은 草溪이다. 동계는 선조와 광해군을 거쳐 인조조까지 산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을 몸소 겪었다. 이 시기에 동계는 節義와 名分을 중시하면서 不義를 보고서는 直言과 直諫을 서슴지 않았고, 나라가 위기에 닦쳤을 때는 여러 가지 計策을 올리는 등 군자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행동하는 知識人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官職生活을 보면 仁祖反正 전까지는 귀양과 左遷으로 점철되어 있다. 광해조에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出仕한 그는 출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慶運宮 移御 문제로 북청으로 左遷되었고, 「甲寅封事」를 올려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仁祖反正 후에는 節義를 지킨 인물로 평가되어 解配되었으며, 주로 淸要職에 등용되었다. 이때에도 그는 廢世子와 仁城君에 대하여 全恩說을 주장하는 등 大義 名分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계는 호란과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를 父母之恩으로 섬겨야 한다면서 척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척화론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한 것으로 그의 思想的 限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강고한 의지로 선비다운 氣概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인조가 항복하러 나가는 날 自決을 시도하였고, 목숨을 건진 후에는 덕유산에 隱居하여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동계의 생애를 出仕 후 시작된 고난의 길과 仁祖反正의 受容과 천명론, 호란과 명·청 교체기와 화이론으로 나누어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歷史認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계가 보여 주었던 실천적 측면의 연구는 인물 개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상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의 글은 내용적으로 역사적 사안을 두고 읊은 작품이 많고, 그 당시의 비중 있는 인물들과 주고받은 글에서 역사적 흐름과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히 광해·인조 교체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한 시나 글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행동에 대한 것은 그의 글 전체에서 설명거리를 찾아야 한다. 즉 그와 같은 행위의 저변에 있는 사상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계가 살았던 조선 중기는 외적으로는 빈번한 전쟁으로 인한 혼란기였고, 내적으로는 반정 등으로 정권이 바뀌는 격변의 상황이었다. 본고에서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동계가 어떻게 현실상황에 대처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의 시를 고찰할 것이다.

그의 문집인 『桐溪集』¹⁾은 두 차례 간행되었는데, 초간본은 저자의 손자 岐壽가 집에 보관된 초고를 수집·편차하여 1660년경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중간본은 1852년에 후손 노필(夔弼) 등이 『桐溪續集』을 추가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중간본의 분량은 원집 4권, 속집 3권, 부록 2권, 연보를 합하여 모두 9책으로 총 597판이다.

시는 원집에 349제, 속집에 170제로 모두 519제(554)가 남아있다. 이것은 시체별로 수록되어 있다. 원집에는 5언절구 7제, 7언절구 134제(145수), 5언율시 96제(107수), 7언율시 87제(88수), 5언배율 17제, 7언고시 8제가 있다. 속집에는 5언절구 16제(17수), 7언절구 61제(67수), 5언율시 55제(59수), 7언율시 35제(36수), 고시배율 3제가 실려 있다. 이외에 연보에만 전하는 시로 칠언절구 「新燕」, 「偶成」 등이 있고, 제주에서 전염병을 앓고 난 뒤에 지었다는 1편은 제목 없이 시만 전한다. 요좌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칠언배율 1편도 제목 없이 시만 전하고, 「示諸子」의 경우 본집에는 1수만 전하고 연보에는 두 수가 전한다. 그 외에 「夜直偶吟」도 2구만 연보에 전한다. 또 연보에 제목만 전하는 「渡日有感」, 「移萬城東」, 「黃昏偶吟」, 「聞元帥啓行」 등이 있다.

경성판관으로 좌천된 시기의 시는 100여제에 이르고, 유배기에 지어진 작품은 현전시의 절반을 상회하는 280여제가 있다. 정묘·병자호란과 관련된 작품은 30여수이다. 그 외에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지어진 100여수의 작품과 만시 30여수가 있다. 작품의 창작시기는 미상인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경성판관으로 좌천된 해인 1611년부터 작고한 해인 1641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로 보인다.²⁾

1) 정운, 『桐溪集』 본집 卷1-4, 續集 卷1-3, 附錄 卷1-2, 年譜, 『韓國文集叢刊』 75집, 131-433면. (이하 『桐溪集』 자료의 출처는 글의 제목과 이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동계는 좌천, 유배, 전란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시를 많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감수성이 풍부한 문인이라기보다 학자 또는 정치인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좌천이나 유배 등의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詩를 즐겨 짓지 않았고, 동계는 官僚로서의 생활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동계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桐溪 鄭蘊의 문학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양순필의 1982년 건국대 박사논문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 제주도를 중심으로」에서 유배적 성격이 짙은 한시를 소개하였다. 이후 자료를 보완하여 『濟州流配文學研究』³⁾를 출판하였다. 이 연구는 동계를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동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그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 시문학에 대한 고찰이다. 桐溪는 性理說이나 禮說 등에 관하여 남겨놓은 글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정치 사상적 연구는 선조, 인조 대의 실록이나 광해군일기, 연려실기술, 혹은 그가 남긴 상소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시문학 연구에서는 유배시기에 지어진 시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유배전후의 의식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의 생애에서 유배가 갖는 적지 않은 의미를 고려해본다면 이는 당연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중에서 먼저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초기에는 정일선⁴⁾의 연구가 눈에 띈다. 그는 동계의 생애와 학문을 고찰하고 당시의 사회실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지향한 바가 무엇인가를 정치사상으로 묶어 고찰하였다. 정일선은 동계의 생애를 成長修學期, 初期 出仕 및 流配期, 後期 出仕期, 隱遁期로 나누었는데, 초기 출사기에는 스승 정인홍과 함께 동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조 반정 후에는 남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았다. 이후 순탄한 벼슬 생활을 하다가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청에 항복하자 덕유산 자락의 금원산에 들어가 세속을 끊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다.

2) 呂運弼, 「桐溪 鄭蘊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제9집, 2004, 32-33면.

3)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4) 정일선, 「桐溪 鄭蘊의 政治思想 一考」,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그는 동계의 정치사상을 義理思想, 斥和論, 濟世論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조선조 중기 사회의 변동기를 한 지식인이 어떻게 대응하려 했는지 조명하였다. 정일선은 동계의 義理思想을 17세기 전반 사림의 性理學的 義理와 명분을 통한 왕통관에 의해 王家를 인식하고 나아가 왕가를 天理인 禮를 가장 숭상해야 할 公家로 인식하는 것을 살폈다. 동계가 영창대군의 복위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 의리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호란이 일어나자 동계는 강고한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의 存亡의 계책에 도움이 된다면 君父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의리에 입각한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동계의 척화론은 김상헌에 비하여 강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청음보다 추앙받지 못하였다. 정일선은 이것이 동계가 노론이 아니라는 데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濟世論에서는 國防觀과 安民論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국방에 관하여는 강병책을 살폈다. 안민론에서는 三南지방 조세 문제를 살피서 量田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을 대변하였다. 또한 봉당의 弊端에 대한 것을 살피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깊은 논의는 끌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桐溪 鄭蘊의 論三篇 試探 - 「張良不諫易太子論」, 「太公扶伯夷論」, 「箕子受封朝鮮論」을 대상으로-」⁵⁾는 桐溪 鄭蘊의 남긴 4편의 論 가운데 장량, 태공, 기자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다. 정시열은 論의 내용을 통해 동계의 사상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그의 행적을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계의 論이 어느 시점에 지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 일어났던 특정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바탕 하에 논의를 전개했다. 저자는 세 편의 논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계의 노력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원칙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고, 작가 자신이 선택한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찰했다. 이 글은 동계의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시야를 좁혀 집중적인 연구를 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세 편의 논이 쓰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절 많은 삶을 산 동계의 사상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겠다.

5) 정시열 「桐溪 鄭蘊의 論三篇 試探 - 「張良不諫易太子論」 「太公扶伯夷論」 「箕子受封朝鮮論」을 대상으로-, 『語文學』, 제16집, 2012, 211~235면.

김만선의 「桐溪 鄭蘊의 學問과 政治活動」⁶⁾는 南冥學에 대한 관심이 曹植 · 鄭仁弘에게만 집중되고 인조반정 후 右道士林 중 가장 현달하였던 정온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온의 가계와 생애 그리고 기질상 특성을 살폈다. 또한 學問的 淵源과 동계의 주거지인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남명학파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정치활동에서는 명분에 충실한 모습과 인조반정 후 南人의 정치노선을 견지하면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반정공신 세력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저자가 간과하다시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살피지 못하였고,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만 살피는데 그쳤다. 그러나 남명학파의 학맥을 살피는 연구에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桐溪 鄭蘊의 정치적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⁷⁾에서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헤쳐 나갔던 정온의 정치적 행적을 살폈다. 아울러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처형과 함께 남명학파의 학맥이 끊어졌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동계를 중심으로 재야의 문인들과 인조대 조정에 나아갔던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남명학파의 사상이 계승되는 점을 고찰했다. 즉 정온의 정치적 행적을 살피 인조반정으로 무너졌던 복인정과, 나아가 남명학파의 遺緒가 계승되는 양상에 중점을 두어 정온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동계가 병자호란 당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던 척화파로서의 활동을 고찰하여 金尙憲이나 三學士⁸⁾ 등 서인계 척화파들의 입장과는 또 다른 남명사상의 실천적인 면모를 계승한 점을 밝혀낸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오수창은 南冥學派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동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⁹⁾ 저자는 동계가 그 시대 누구보다도 자신의 政治理想에 충실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것이 조선 중기 이후 士族이 주도하는 政治秩序에 政治家·思想家의 한 전형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붕당론에서도 복인 일반의 붕당론과는 달리 복인의 독주에 반대함으로써 17세기 붕당정치의 운영에 중

6) 김만선, 「桐溪 鄭蘊의 學問과 政治活動」,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7) 한명기, 「桐溪 鄭蘊의 정치적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南冥學研究論叢』, 제9집, 2001, 470~503면.

8)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가 인조가 항복한 뒤 중국 선양으로 끌려가 참형당한 홍익한 · 윤집 · 오달제 등 세 명의 학사.

9) 오수창, 「桐溪 鄭蘊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 『南冥學研究』, 제11집, 2001, 327~352면.

요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그는 동계의 정치이념을 보수주의로 보고 量田에 대한 생각은 지주 중심의 향촌주도세력을 옹호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의 반정공신 崔鳴吉과는 量田, 庶孽許通, 斥和論 등 국정 실무의 모든 문제에서 참여하게 대답하는 것을 살폈다. 다만 정온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민생을 개혁해 사회변화를 이끌고 나간다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도, 실제 실천으로써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계의 한계를 당시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충실한 원칙론자로 규정했다. 이 논문은 앞서 제시한 한명기의 연구에 비해 실제 실천적인 부분까지 살펴 논의가 한층 깊어졌다 하겠다.

「桐溪 鄭蘊 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¹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계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동계의 10년 유배생활 중 교육적 자취와 제주도 서원배향이 제주교육사에 미친 의미와 영향을 살폈다. 교육적 자취에서 유배지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교학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동계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서원 배향의 경우 그 사람을 보는 듯이 하여 후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는 의미로 살폈다. 특히 동계는 남명학파의 遺緒라는 차원에서 학문의 실천에 엄격했던 교육사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 있었다고 보았다.

동계의 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고정우¹¹⁾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유배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동계의 작품 중 유배적 성격이 강한 한시 60 수를 연구했다. 고정우는 이 논문에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유배자의 정직한 심정 토로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음으로 나온 성과는 김경희의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¹²⁾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이란 작가의 정신적 궤적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작가의 의식의 변모에 주목하면서 그의 시세계를 규명하였다. 첫째, 개인적 사회적 처지 검토에서

10) 양진건, 「桐溪 鄭蘊 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教育思想 研究』, 제24권 2호, 2009, 129~147면.

11) 고정우,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2) 김경희,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는 성리학적 의리관에 철저한 삶을 살았던 동계의 家學과 學統의 影響과 아울러 양반사회의 분열이 극심했던 사회적 환경을 살펴 작가의 삶의 지향점과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둘째, 동계의 詩와 意識에서는 理想實現의 意志表明, 挫折과 鄉愁의 變奏, 自然에의 沈潛과 內面化 등으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동계의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한 개인이 혼란기의 사회와 맞물려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연구했다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桐溪 鄭蘊 研究」¹³⁾는 영남 성리학의 학풍을 이어받고, 남명학파에 속하는 동계 정운의 생애 및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학세계를 살펴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한 士林精神을 연구했다.

여운필¹⁴⁾은 동계는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시작을 즐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것은 동계가 문인이라기보다는 학자였다는 증좌일 뿐만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그의 시를 주목하지 않게 한 요인이었다고 했다. 하여 동계의 시세계를 제주 유배시의 작품들에 다양한 정서와 호란과 관련된 작품에 나타나는 慷慨한 의식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 결과 동계는 한 시대의 대표적 시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의 시를 詩史·詩風·特長 등의 관점에서는 만만치 않은 면모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유배생활에서 보인 다양한 정서적 반응은 타 유배기에 시어진 시, 혹은 다른 시인들과의 차이점이나 변별성을 획득해 동계만의 특징적 시세계를 찾아내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근¹⁵⁾은 유배객의 복합적인 정서를 인간적인 그리움과 恨, 求道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움에서는 임금과 어머니를 동일선상에서 그리워하였고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하여 침착하려 노력하지만 결국은 한으로 표출하였다고 보았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도구로 구도를 택하고 이런 구도의 자세는 달관으로 발전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보다 소극적이었음을 시로 고찰하였다. 그는 동계의 시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소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出仕시절 추사처럼 만족감이 없었으니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에 부

13) 梁順芝, 「桐溪 鄭蘊 研究」, 慶尙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5.

14) 呂運弼, 앞의 글, 31-65면.

15) 부영근,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東亞人文學』 第十輯, 2006, 49-67면.

족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배객들의 공통인 불안한 처지로 불확실한 미래에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시열의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¹⁶⁾에서는 桐溪 鄭蘊의 『동계집』에 전하는 한시 550여수 가운데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통하여 선비정신을 논의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계의 시가 유머러스하다고 한 것이다. 한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볼 필요는 없겠으나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동계는 경상우도 지역 사립의 은둔적인 경향과는 달리 광해조에는 공신으로, 인조조에는 節義를 지킨 인물로 평가를 받으며 출사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반정후 동계가 조정에 출사할 때 조정에서는 物議가 들끓었다. 들끓는 물의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동계를 언관직에 임명하였고,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동계는 관직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 동계 스스로 말하기를 간언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떠난다는 의리를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 오히려 그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동계가 속했던 경상우도 사립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인조조에 출사하여서도 동계는 유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직언과 직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의 동계 연구는 그의 정치적인 면을 연구하거나 시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방향에서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적 명분을 목숨처럼 중시한 그가 어떻게 하여 두 임금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계는 歷史認識의 면에서 남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시와 글들을 남기고 있다. 그 글들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엄정하고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를 받는 동계가 ‘事二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동계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6) 鄭時烈,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 41집, 2012, 96~128면.

II. 桐溪 鄭蘊의 社會的 處지와 現實認識

1. 동계의 社會的 處地

16세기 경상도는 경상우도와 경상좌도로 나뉘어져 학문이 발달하였다. 南冥 曹植이 이끌었던 경상우도는 金宏弼, 鄭汝昌, 金駟孫 등 15세기 영남 사림과가 성취해 놓은 학문적 사상적 연원을 계승하여 남명학파가 발전하였다. 退溪 李滉이 이끌었던 경상좌도는 理를 중심으로 주리적인 경향을 가지고 敬을 중시한 퇴계학파가 발달하였다. 남명조식은 理와 氣의 이론보다는 그것의 실천에 주력하는 敬과 義를 중시하였다. 조식의 不義를 보고 참지 못하는 현실적 자세는 그의 문도들에 의해 전승되어 남명학파의 기풍을 형성하게 된다.

동계는 어려서 아버지 鄭惟明에게 배웠는데, 정유명은 葛川 林薰과 玉溪 盧禎의 제자였다. 임훈은 일정한 스승 없이 학문을 이루었는데 一蠹 鄭汝昌 이래의 영남사림과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南冥 曹植과는 절친한 벗으로서 학문을 공유하였다. 동계가 어렸을 때 경상우도의 학문적 분위기는 남명의 제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鄭仁弘은 남명의 高弟였다. 동계는 정인홍과 사제의 연을 맺고 학문했다. 그러나 동계가 언제 정인홍의 문하에 출입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정인홍이 仁祖反正으로 처형된 이후 그와 관계된 기록을 刪削해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계는 또한 퇴계의 高弟인 月川 趙穆을 젊은 시절부터 스승으로 삼았다. 동계는 「月川趙先生神道碑銘」에서 월천선생의 자질은 퇴계에게서 얻어서 완성되었고, 퇴계의 도학은 선생을 얻어서 빛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계는 寒岡 鄭述도 스승으로 삼았다. 퇴계와 남명의 문하를 모두 출입한 것이다.¹⁷⁾ 그러니까 동계는 남명의 학문을 배워 節義를 중시했지만 퇴계 학맥의 특징인 저술도 도위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뒷날 그의 생애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인조반정 이후 鄭

17) 그러나 한강과의 師承관계 자료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인멸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仁弘과 李爾瞻이 처단되면서 복인세력이 완전히 몰락하였다. 그러나 동계는 퇴계의 문하를 드나들었던 인연으로 하여 仁祖反正 이후에도 계속하여 벼슬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동계는 퇴계 학맥과 남명 학맥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동계는 일생에 걸쳐 유학적 원칙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물론 동계만의 행동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인이었던 동계의 처지가 그를 보다 더 완고한 원칙론자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經史를 섭렵하여 곤경에 처했으면서도 德을 잃지 않았던 문왕에서부터 진덕수까지 59명의 事行을 수집하여 『德辨錄』을 저술하였다. 모리에 은거한 뒤에는 주자 이후의 여러 유학자들의 언행과 우리나라 儒賢들의 언행을 정리하여 『續近思錄』을 편찬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또 동계는 주로 經史와 宋儒들의 책을 즐겨 읽었다. 특히 송나라 유학자들의 지은 圖說, 箴銘, 贊 등을 즐겨 읽었다. 조경은 동계의 諡狀에서 제주도에 있는 10년 동안 經史와 백가의 글을 읽어 밤을 지새기까지 하였다고 했다. 특히 『周易』은 날마다 한 괘를 외우는 것으로 常例를 삼았다¹⁸⁾고 하였다. 끊임없이 원칙을 파고 든 것이다.

동계는 또한 맹자와 한유의 글을 좋아하였으며, 굴원의 「卜居」, 「漁父辭」, 제갈량의 「前後出師表」 등을 즐겨 읽었다. 이러한 글들은 유학 경전은 아니지만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 있는 문장들이었다.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일생을 오로지 했던 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정통 성리학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문장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유학의 이론화에 일생을 바친 한유의 글을 읽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동계의 문장은 대부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文體는 강직하고 直說的이다. 이것은 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동계 시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散文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유나 맹호연을 이은 송대의 구양수, 매요신 등의 이른바, ‘문으로 시를 삼는다.’(以文爲詩)¹⁹⁾는 표방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는 뜻을 나타내면 그만이지 工拙을 문제 삼지 않았던 북송 소

18) 『桐溪集』, 389면.

19) 이종묵, 「성리학적 사유의 형상화와 그 미적 특질」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07면.

옹의 성리학적 전통에 충실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시를 표현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계인적 처지는 그의 벼슬살이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동계는 선조조에 태어났고 광해군과 인조조에 걸쳐 정치대립과 이념논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광해군은嫡長子가 아니라는 종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적장자가 없었던 선조는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인 임해군은 광복하여 세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동복동생인 광해군이 총명하여 세자로 책봉되었다고 한다. 왜란이 끝난 후인 1606년에 선조가 그렇게 원하던嫡長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선조는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조가 갑자기 죽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왕권을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명나라는 광해군이 보낸 왕위 책봉을 주청하러 간 사신에게 장자인 임해군이 살아있는데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명나라는 이 문제를 알아본다며 심지어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장자로 왕권의 위협에 실질적인 존재가 되고 있던 임해군은 역모의 혐의를 받아 광해군이 즉위한 9일 만에 진도로 유배되었다. 임해군 옥사가 일어나고 살해될 때까지 한 해 동안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은 끊임없이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해군은 결국 사사되었고 임해군을 죽인 사람은 대북과李爾瞻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정표였다.

동계는 스승인 정인홍에게 서신을 보내어 ‘성상께서 무고하게 천륜으로 맺어진 혈친을 해치려 한다는 말과 殯殿에 칼과 방망이를 사용했다는 말은 모두 사실무근한 데서 나온 것인데, 감히 이런 말을 한 자는 어리석지 않으면 흉험한 자이므로 진실로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²⁰⁾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고변한 자들이 한 둘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임금의 同氣를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역모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閨門 안에서는 은혜가 항상 의리를 덮는 법이라면서 庶人으로 삼아 죽이지 않는 것도 한 방법’²¹⁾이라고 했다. 임

20) 「與鄭仁弘書」, 197면. 聖上無故 欲戕天顯之親 而殯殿鈍椎之說 皆出於無根 敢爲此說者 非愚則險也 固不足掛齒.

21) 위와 같은 곳.

해군을 폐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全恩說을 주장한 동계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서까지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동계가 광해조에 벼슬을 하면서 올린 글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왕실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는 대북과에 속했으면서도 당색 논리에 따르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현실에서 당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남명 학맥이 대북이기는 하지만 퇴계학 맥과도 닿아 있던 동계는 하나의 당색적 입장만을 취하지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스승인 정인홍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고, 廢母 반대 상소에서는 일부 서인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黨爭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를 청하는 편지를 정인홍에게 보내기도 하였다.²²⁾ 이렇게 본다면 동계는 초당색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실상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남명과 퇴계 양 선생의 문하를 드나들면서 이루어진 그의 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계가 끊임없이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적은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가 끊임없이 군주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理와 氣의 이론보다는 그것의 실천에 주력하는 남명학파의 기풍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식의 출처만을 따르고자 했었다면 임금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벼슬을 버리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남명학파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계가 남명학파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화이론적 측면에서였다. 동계는 명·청 교체기에 있어 崇明排淸 사상에 투철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대국으로 섬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청에 대해서는 오랑캐라 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배척하였다. 병자호란 시에는 和議에 반대하며 자결을 시도하였으며 代表的인 척화파 신하로 자신을 청에 포로로 보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동계가 자결에 실패한 후에 은둔한 것은 명분과 의리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22) 「與鄭仁弘書」, 198면.

2. 동계의 現實認識

동계는 광해군 즉위 2년인 1610년에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사하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옛 월산대군의 집과 주변의 민가를 개조해 정릉동 행궁을 임시 궁궐로 삼았었다. 정운이 출사 후 1년 뒤인 1611년에 광해군은 많은 비용을 들인 창덕궁이 완공되자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에 정운은 광해군이 이유 없이 거처를 옮기려고 하자 요망한 징조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까닭 없이 移御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상소를 올린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다리를 제쳐두고 배를 타는 것은 진실로 따질 것도 못 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마는, 옛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간언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거조는 국가의 성쇠에 관계되고 민심의 이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색이 간관이란 자가 목숨을 걸고 간쟁하지 않고 구차하게 책임만 모면하려 하겠습니까. 설혹 불행하게도 오늘날 경운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이 과연 백성들이 추측한 대로 들어맞는다면, 신은 마땅히 수레를 붙들고 만류할 것이며 옷깃을 붙잡고 간언을 하다가 국문 밖에서 죽을 것입니다.²³⁾

사간원과 사헌부 등 양사에서도 처음에는 이어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광해군이 뜻이 완고하자 그에 따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동계는 뜻을 굽히지 않고 臺諫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移御不可論으로 맞섰다. 이 일로 인하여 동계는 광해군의 미움을 사서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이 때 沈喜壽는 시를 한 수 주어 그가 직간한 것을 기리고²⁴⁾ 許穆은 「桐溪先生行狀」에서 ‘직언하다가 좌천되는 동계를 두고 “봉황이 조양에서 울었다”고

23) 「獨啓」, 205면. 臣之愚意以爲 捨橋乘舡 似不是固爭之事 而古人猶且欲以頸血濺地 況今茲之舉 關國家盛衰 係民心離合 官以諫爲名者 其可不爭之以宛 而苟爲塞責而已乎 設或不幸 今日仍 留慶運之說 果符於下民之 臆 度則臣當攀輦血項 牽裾泣諫 宛於國門之外. 번역은 『국역 동계 정운 문집』(민족문화추진회, 2006)에서 취하고, 간혹 필자가 수정한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24) 「年譜」, 404면.

하였다.²⁵⁾ 즉 간관으로서 명성을 얻은 것이다.

桐溪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癸丑獄事에서 다시 한 번 파란을 겪는다. 아마도 동계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계축옥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1613년에 계축년에 문경새재에서 銀商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영창대군이나 인목대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朴應犀와 徐洋甲, 沈友英, 朴致仁, 朴致毅 李耕俊, 許弘仁 등 명문가의 庶孽들이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다가 붙잡힌 사건이다. 이들은 江邊七友를 자칭하면서 도원의 결의를 맺고 무기와 양식을 준비했다. 서얼들의 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嫡庶差別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서출들의 반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북과 李爾瞻과 그의 심복들의 사주를 받아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거짓 음모를 꾸몄다. 七庶 중의 한 사람인 박응서가 거사자금을 마련해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고 그 중심에 영창대군의 외조부 金悌男이 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김제남은 사사되고 영창대군은 庶人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된다. 이것이 바로 계축옥사이다.

계축옥사는 조작된 것이었다. 이이첨이 영창대군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이이첨 등의 집권세력은 嫡長子를 남겨두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보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생각했다. 임해군 사태 당시에도 그랬지만 권력을 위해서 광해군의 형제를 제거하려는 이이첨과 이를 막으려는 동계는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선조 말년에 스승 정인홍이 柳永慶을 공격한 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동계는 스승을 구원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었다. 이일로 인하여 공훈을 인정받자 동계는 스승과 문생 사이에서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국가의 안위에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러자 李爾瞻은 策勳이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서 그런 것이라며 나무라서 동계는 어쩔 수 없이 공훈을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 또 남의 집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동계가 李爾瞻을 피해서 이이첨은 동계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었다고 한다.²⁶⁾

25) 『行狀』, 371면. ‘봉황이 조양에서 나온다’는 말은 『시경』 대야(大雅) 권아(卷阿)에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오동이 저 높은 산봉우리에서 울도다. 오동이 저 조양에 나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높은 산봉우리의 봉황은 좋은 세상의 賢才이고, 조양의 오동은 다스려진 조정의 어진 임금이다.”라는 뜻이다.

동계는 이 무렵 세상과의 불화가 점차 심해져 무릅없는 행동을 하다가 탄핵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즉 성절사의 拜表禮에 참석하였다가 通絹을 입지 말라는 사헌부의 금령을 고의로 어긴 것이다.²⁷⁾ 후일 그는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금령을 범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지난날 내가 고의로 헌부의 금령을 범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고인 가운데에도 행한 사람이 없지 않다. 내 뜻이 또한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대궐의 뜰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두려움을 몰랐으니, 그렇게까지 방자하게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과연 무슨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²⁸⁾ 하였다. 자신의 행동이 방자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이런 행동도 이이첨과의 불화에서 나온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동계는 스승 정인홍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덟 살 먹은 철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역모를 꾀할 리가 만무하다고 하였다. 만약 조만간에 奇貨와 禍本으로 삼아 제거하려 한다면 한사람이라도 죄 없는 이를 죽이고 천하를 얻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을 들며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뒤 정인홍과 만났을 때에도 영창대군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니 정인홍도 당시에는 옳게 여겼다고 한다.²⁹⁾

이 사건은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614년 봄에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강화부사 鄭沆은 영창대군을 작은 골방에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蒸殺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린 나이에 맞은 비참한 죽음이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이어 광해군은 1615년 겨울에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에게 문안을 드린 후 혼자만 창덕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부터 인목대비는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가 시작되었다.

영창대군이 죽자 동계는 「甲寅封事」를 올렸다.

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국법은 지엄합니다. 죄 없는 凡人을 죽이더라도 또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임금님의 친 동기를 죽인 경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정황을 참수하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26) 『年譜』, 405면. 四十年壬子 - 四十一年癸丑 참조.

27) 『年譜』, 405면.

28) 위와 같은 곳.

29) 위와 같은 곳.

는 선왕의 묘정에 들어갈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³⁰⁾

또한 동계는 영창대군의 호를 회복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영창의 대군 호를 회복시켜 대군의 예로 장례 지내게 하시고 또 애통하다는 전교를 내려서 온 나라의 신민들로 하여금 전하의 우애하는 본심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면 위로는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을 위로할 수 있고 아래로는 만민의 의심하는 이목을 풀어줄 수 있으며 후세에 전하더라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³¹⁾

「甲寅封事」는 꽤 긴 글이지만 동계의 주장은 명쾌하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임금의 동생을 죽인 자는 더욱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먼저 정향을 참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계는 형제를 잃은 광해의 처지를 ‘孤立無援’ 즉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라고 하면서³²⁾ 정향을 참수하지 않으면 선왕의 묘정에 들어갈 면목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동계가 「甲寅封事」를 올린 것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해서만이 아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死後 처리를 현명하게 하여 임금의 德을 넓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동계가 생각하는 신하의 도리는 임금을 보좌해서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임금에게 올리는 諫言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계는 이 소를 올리고 난 뒤 광해군의 親鞫을 받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甲寅封事」는 동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준 사건이면서 인조반정 뒤 다시 조정에 출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후세에 동계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인조반정 후에는 節義를 지킨 인물로 평가되어 유배에서 풀려나고 조정의 清要職에 등용되었다. 인조대는 서인이 집권한 시기였다. 이때 대북파는 완전히

30) 「甲寅封事」, 203면. 噫 殺人者死 國法甚嚴 殺凡人無辜 且罔死 況殺吾君同氣之親乎 臣愚以爲不斬鄭沆 恐殿下無面目入於先王廟廷也

31) 위의 글, 204면. 臣愚以爲宜命有司 追復永昌之號 葬以大君之禮 又下哀痛之教 使四方臣庶 嗷然知殿下至誠友愛之本心 則上可以慰先王在天之靈 下可以解萬民視聽之惑 而傳之後世 亦將有辭

32) 위와 같은 곳.

몰락하여 동계는 자연스럽게 남인 계열에 합류하여 집권파인 서인들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그는 반대 의견을 지닌 소수파로서 인성군에 대한 全恩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節義와 大義名分을 가장 중요시하여 그것을 現實政治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동계는 항상 불의에 저항하고 正道를 지향한 인물로 광해조와 인조조에 거쳐 일관되게 大義名分을 지키기 위해 直言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관철되지 못했고 世道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집권층의 독주를 막는데 얼마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계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끈고 강직한 기질은 칭송할만 하지만 무조건적인 배척사상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한 것으로 現實的인 對應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思想的 限界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Ⅲ. 桐溪 鄭蘊의 詩世界

1. 벼슬의 시작과 挫折

동계는 늦은 나이인 42세에 別試 乙科 제2인 及第出身으로 權知 成均館學諭로 보임되면서 出仕하게 된다. 그러나 1년 뒤인 광해군 3년에 임금이 慶運宮으로 移御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官無內外皆王事	내외직이 모두 왕사인 것을
汲子何爲願拾遺	급암은 어찌하여 습유를 자원했나
百里淮陽非是薄	회양 길 일백 리가 박한 것이 아니니
召還寧恨十年遲 ³³⁾	소환이라면 십 년이 더딘들 어찌 원망하리

동계는 내직이나 외직이나 모두 다 임금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 경성판관으로 나가는 것도 내직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를 올렸다가 잘못되어 경성판관으로 나가는 것도 좌천이 아니라고 보았다. 궁궐을 출입하면서 임금 곁에서 임금을 직접 돕는 일을 하거나 도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백성을 위해 일을 하거나 모두가 나랏일이다. 이러한 심정을 동계는 한나라의 명신 汲黯을 꾸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직언을 잘 하기로 유명했던 급암이 회양 태수를 제수 받았을 때 그는 외직에 가기보다는 拾遺로 임금 곁에 있기를 원했다. 拾遺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게 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무제는 회양을 우습게 여기느냐고 나무랐다. 급암은 회양으로 가기를 거부했었지만 동계는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것만이 신하가 할 직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장유가 회양으로 가서 선정을 펼 것처럼 동계 역시 경성부 임소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다 돌아왔다. 이 시는 비록

³³⁾ 「淮陽道中」, 141면.

좌천되어 변방으로 내쳐진 몸이지만 선정을 펼쳐 백성들을 편안히 하겠다는 다짐을 한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시일은 십년이 걸리더라도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양은 강원도에 있으며 옛날부터 관북지방에 대한 군사상 요충지이다. 이곳을 지나면서 ‘淮陽’이라는 지역 이름이 같은 용사를 빌려와 좌천되어 가는 곳에서도 선정을 펴겠다는 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시는 「甲寅封事」를 올리고 지은 시이다.

剝肝裁短奏	간장을 깎아내어 짧은 소를 지은 다음
排闥叫彤雲	대궐문을 밀치고서 궁중에서 호소했네
昭雪非哀死	원통함을 씻음은 죽음을 슬퍼함이 아니고
光明欲贊君	광명한 처사는 임금에 도우려 함일세
丹心猶自皎	일편단심이야 아직도 절로 깨끗하니
群議任他紛	비난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으리라
瞽說如毫補	분별없는 주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微身死亦欣 ³⁴⁾	미미한 이 한 몸 죽더라도 기쁘리라

(경련의 丹心은 연보에서는 寸心으로 되어있고, 群議는 群疑³⁵⁾로 되어 있다.)

동계는 소를 올릴 때의 심정을 간장을 깎아내는 것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임금이 바른 도를 행할 것을 호소했다고 말하였다. 昭雪은 영창대군을 죽인 강화부사 정향을 처형하고, 영창대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호를 회복시키며, 大君의 예로써 장사 지내고, 애도하는 교서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원통함을 씻어주고자 청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해서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덕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것을 도우려 함이다.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후 처리를 현명하게 하여 임금의 德意을 넓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시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甲寅封事」에서 그는 ‘옛날의 군자는 한 때의 이익을 헤아리지 않고 다만 義理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논하여 부지런히 삼가고 삼가다가 인륜의 기강이 문란해지지 않을까, 임금의 덕에 혹시라도 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경계를 주고

34) 「呈疎後吟」, 294면.

35) 「年譜」, 406면.

권장하여 인도한 까닭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겠습니까.’³⁶⁾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 시에서 저자가 「甲寅封事」를 올린 것은 의리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그렇기에 못 신하들이 의론을 하든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든지 상관없이 본인은 일편단심으로 임금의 덕을 밝게 드러내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몸 하나 짊어지고 죽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아니 도리어 기쁠 것이라고까지 한다. 신하의 도리는 임금을 보좌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임금에게 올리는 간언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니 이 당연한 도리를 행함으로써 화를 당한다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는 도리를 동계는 ‘신하가 보필하는 도리로 말한다면 마땅히 면전에서 거절하고 조정에서 논의하여 임금이 노여워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머리가 부서져도 달게 여겨야 하는 것’³⁷⁾이라고 한 바 있는데 역시 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赫赫凝旒俯玉墀	성상께서 뚫어지게 뜰아래를 굽어보는데
首囊三木跪陳辭	삼목낭두를 하고서 꿇어앉아 진술하였네
天心喜怒非人料	하늘의 희로 ³⁸⁾ 는 사람이 헤아릴 바 아니니
要在中心不自欺 ³⁹⁾	스스로 속이지 않는 충심이 중요할 따름이네

「甲寅封事」를 올린 후 3월에 옥에 갇히고, 그 해 유월에 임금이 직접 동계를 鞫問하였다. 이 시는 동계가 임금의 친국을 받고서 다시 하옥 되었을 때 친국을 받는 당시를 회상하며 지은 것이다. 삼목은 목, 손, 발에 형틀을 채우는 것이고, 낭두는 물건으로 그 머리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죄인의 刑具를 착용한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앞의 두 구가 밖으로 드러난 외양이라면 뒤의 두 구는 마음속으

36) 「甲寅封事」, 202면. 古之君子 不許一時之利害 惟論義理之當否 惓惓以倫紀之或索 君德之或愆 告戒而勸導之者 爲如何哉.

37) 「張良不諫易太子論」, 190면. 以人臣輔弼之道 言之 則所當面折之 廷論之 批鱗之不憚 而碎首之猶甘也.

38) 『국역 동계 정운 문집』에는 ‘하늘의 성정’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성정’보다는 ‘희로’가 원문에 충실할 뿐 아니라 보다 더 가변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바꾸었다.

39) 「供畢還下獄有詩 甲寅六月」, 290-291면.

로 생각한 것을 표출한 내적인 것이다. 천심 곧 天意는 인간이 헤아릴 바가 아니라고 시인은 말한다. 다만 그 하늘의 뜻 앞에서 자신은 신하로써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다. 그 다음은 어떤 벌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던지 그것은 천명 즉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다.⁴⁰⁾

동계는 그와 같은 자세를 ‘不自欺’으로 말하고 있는데 「甲寅封事」에서도 이와 비슷한 ‘勿欺犯’으로 임금을 섬기는 법도로 말하였다. 즉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임금의 덕을 밝게 하기 위한 三綱五常의 도리를 간했으니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할 도리를 한 셈이다. 그 다음은 인간의 손을 떠난 하늘의 일이다. 그러니 옳은 충절 앞에서는 그 어떤 벌이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한다.

동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사건은 癸丑獄事였다. 대북과가 영창대군 및 반 대과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이 옥사로 인하여 영창대군이 賜死되자 동계는 「甲寅封事」를 올렸다. 이 일로 인하여 동계는 광해군의 親鞫을 받고 절해고도인 제주도의 대정현으로 유배되어 이후 10여년에 걸친 위리안치 생활을 하였다.

郎中枉擬廁清禁	낭중의 잘못된 비의로 대궐에 들어가서
依仰餘光日月臨	일월 같은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셨네
遇事周章非我志	일을 만나 주선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요
責難狂直是吾心	솔직하게 책난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어라
時庸可作朝陽瑞	등용이되면 조양의 상서로움이 되고
道屈還爲梁父吟	도가 굴하면 도리어 양보음을 읊으리라
控此嚶嚶虛負了	이 큰 뜻 가지고도 헛되이 저버렸으니
漢挈窮海碧波深 ⁴¹⁾	한라의 큰 바다에 푸른 물결 깊어라

시인은 벼슬에 나가면서 조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주가 바른 도를 펴지 못할 때 正道로 가도록 책난하는 것을 자신이 도리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솔직하게 책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외딴 섬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고 만다. 조양의 오동처럼 잘 다스려진

40) 동계의 ‘天命論’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41) 「述懷次洪裕孫韻」, 161면.

조정의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한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시인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도가 바르면 나아가고 도가 굽으면 은둔하여 군자의 도를 이루려고 했으나 이 뜻마저도 유배라는 상황에 헛되이 막혀 버렸다. 간언하다가 유배된 동계는 조양의 상서로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저 梁父吟이나 읊조릴 수밖에 없다. 梁父吟은 樂府의 곡명인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제갈량의 梁父吟은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안평중(晏平仲)이 도량이 좁아 세 명의 용사를 죽이고야 만 일을 한 탄하는 내용이며, 이백의 梁父吟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울분을 서술한 것이다.

마지막 연의 탄식은 절절한 느낌을 준다. 좋은 세상의 현명한 인재가 되고 싶었던 포부가 큰 만큼이나 좌절감도 컸다. 시인은 갑작스럽게 ‘한라의 큰 바다에 푸른 물결이 깊다’고 탄식하는데 물결의 깊이는 저자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이기도 하다. 시인의 울분과 시름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시이다. 그가 梁父吟을 읊겠다는 것은 이런 탄식의 의미이다.

제주도 유배기간 동안 동계는 심각한 갈등을 느꼈다.

海近多風浪	바다가 가까우니 풍량이 많고
城低接瘴癘	성이 낮아 장기와 흠비가 끼네
美人天北極	임금님은 북쪽 하늘 끝에 계시고
孤影地南涯	외로운 신하는 남쪽 땅에 있네
橘頌吟來久	귤송은 읊조린 지 이미 오래고
蓴羹想政佳	순채국은 정말로 맛이 있었지
平生獨往地	평생 혼자서도 오고가던 곳이건만
今日閉籠懷 ⁴²⁾	오늘은 갇힌 신세가 되었네

시인은 유배생활 하는 제주의 환경을 장기와 흠비라는 말을 써서 어려움을 말한다. 「大靜縣東門內圍籬記」에서도 유배지가 바다와 가깝고 지형이 낮아서 瘴毒 기운이 세 읍중에서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봄여름의 교차시기부터 8월 초순까지 음산한 비가 연일 내려서 갠 날이 없고 사나운 바람이 무시로

42) 「風亂」, 295면.

불며 獐霧가 잔뜩 끼면 지척에서도 사람을 분간할 수 없다⁴³⁾고 한 말과 같다. 당시 유배되어 있던 친구 吳翼承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가시나무 집은 바다와 십리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독한 안개에 쏘이고 무더운 바람에 그을리며 뱀들이 우글거리고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거처하고 있다.’⁴⁴⁾고 제주의 독특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인한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제주에 귀양 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위와 풍토병, 물것 등으로 고생하였다. 동계도 귀양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독특한 환경 때문에 다리에 병이 생겨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인은 그런 환경이 ‘괴롭다’고 하지 않고 ‘외롭다’고 하였는데 그가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임금님은 북쪽에 있는데 자신은 임금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땅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동계는 ‘굴송’과 ‘순채국’을 떠올린다. 「橋頌」은 굴원의 『楚辭』의 한 편명으로 굴원의 자신이 고결하고 변하지 않는 지조를 끝나무에 빗대어 읊은 것이다. 유배지인 남쪽 땅에서 서식하는 끝나무를 보며 「橋頌」을 읊었던 굴원처럼 지조 있는 신하가 되고자 마음을 다잡는다. 그런가 하면 그는 순채국을 떠올리기도 한다. 순채국은 진나라의 張翰이 고향의 별미인 농어와 순채국을 그리워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를 말한다.⁴⁵⁾ 굴원처럼 지조를 지킬 다짐을 하다가도 가족과 떨어져서 묶여 있는 몸이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순채국은 맛이 있을 거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유배객 동계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해배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또한 해배의 기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하루 속히 유배가 풀려 고향에 돌아가고픈 마음을 순채국에 담아내었다. 척박한 환경과 독특한 기후로 고생하면서도 유배된 신하는 오래전부터 지녔던 절의를 아직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인도 사람인지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다. 언제나 마음대로 오가던 고향길이건만 오늘은 갇힌 신세가 되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北來消息俱堪怕 북쪽에서 오는 소식은 모두가 겁이 나더라

43) 「大靜縣東門內圍籬記」, 174면.

44) 「與吳正言翼承書 丙辰仲夏九日」, 200면.

45) 『晉書 권92 文苑列傳 張翰』. 景仁文化社, 1977, 612면.

夜占燈花晝擲錢 밤엔 등불로 점치고 낮엔 돈을 던져 점치네
 生死固知拋度外 죽고 사는 것 이미 도외시한 줄 알았건만
 且憑杯酒解憂煎⁴⁶⁾ 또 술에 의지하여 타는 속을 풀어 본다

유배된 죄인들은 언제 서울에서 임금의 명령이 내려올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시인 역시 임금이 계신 북쪽에서 오는 소식은 모두 겁이 난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에는 등불로, 낮에는 돈을 던져 자신의 길흉화복을 묻는 것이다. 천명이 있다고 죽고 사는 것 도외시하다다가도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이처럼 타는 속을 술로 풀며 달래보기도 한다.

다른 시에서도 ‘유배지에서 세밀을 만났기로/ 좁쌀을 쥐고 귀녕할 날을 점쳐 보네’⁴⁷⁾ 한다. 좁쌀을 쥐고 귀녕할 날을 점친다는 말은 주자의 주에 의하면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지 않고 형벌에 빠뜨리기를 좋아하지만,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곡식을 한 움큼 들고 나와서 점을 친다.”⁴⁸⁾라고 해석하였듯이 자신에게서 극복의 방법을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낸 시이다.

海上三逢菊有芳 해상에서 국화향기 풍기는 계절 세 번이나 만나니
 流光如水鬢如霜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귀밑머리는 서릿발이라
 東城衰草蛩音歇 동쪽 성 시든 풀에는 풀벌레 소리도 멈추었고
 西日殘雲雁影忙 석양의 희미한 구름엔 기러기 그림자만 바쁘구나
 覓酒正要忘老至 술을 찾는 것은 노경에 이르는 것을 잊기 위함이요
 吟詩非爲愛辰良 시를 읊는 것은 좋은 때를 사랑해서가 아니더라
 遙思家後高峯上 멀리서 생각하노라 집 뒤 높은 봉우리에 올라
 伯仲年年共醉翔⁴⁹⁾ 형제들과 해마다 취해 놀던 그 시절을

46) 「偶成」『桐溪集』, 143면.

47) 「偶吟」『桐溪集』, 153면.

48) 「小雅 小宛」. 『詩經集傳』下,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3. 70면. ‘곡식을 한 움큼 쥐고 나와/ 어찌 해야 좋을까를 점친다.’ (握粟出占 自何能穀.)라는 구절을 용사한 것인데, 이것을 주자는 “왕이 홀아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즐기니 백성들이 스스로 좋은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어서 곡식을 뒤고 나와서 점을 친다.”(王不恤鰥寡 喜陷之於刑辟也 然不可不求所以自善之道 故握持其粟 出而卜之)고 해석하였다.

49) 「九日有感」『桐溪集』, 163면.

구월 구일은 중양절이다. 평범한 날이라도 가족과 멀리 떨어지면 그리울 텐데 하물며 명절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클 것이다. 더구나 시인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죄인의 몸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해상에서 국화향기 풍기는 계절을 세 번이나 만났다 했으니 제주로 귀양 온지도 삼년이 흘렀다. ‘동쪽 성 시든 풀에는 풀벌레 소리도 멈추었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늦가을이기도 하지만 쇠락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해질 무렵 미물조차 제 집을 찾아 들기 바쁘다. 그러나 정작 시인은 가시울타리에 갇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다. 유배지에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만 가는 괴로움을 잊고자 술을 찾았다. 시는 좋은 시절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불우한 상황에서 어찌지 못하는 가슴 속 고민을 풀기 위함이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은 술과 시가 아니고서는 풀길이 없다. 중양절에 현실의 울분과 답답함을 술의 기운을 빌어서 풀고자 하나 오히려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간다. 이 시는 王維의 시 「九月九日憶山東兄弟」를 고사로 하여 사친의 정을 깊게 그려내고 있다.⁵⁰⁾

이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시에는 특히 국화가 많이 보인다.

菊圃叢竹竹連梅	국화를 대로 두르고 대는 매화로 이은 다음
梅下稚松種幾枚	매화 아래 어린 소나무 몇 그루 심었네
與我共成霜雪契	나와 함께 눈서리가 와도 변치 말자 약속했으니
靜中相對好懷開	고요한 가운데 서로 마음을 열어 보자꾸나
四友風聲逢老醜	네 벗의 바람 소리가 늙은 나를 만나더니
榕籬高處共幽巢	울타리 높은 곳에 둥지를 함께 틀었네
莫言標格因吾屈	나로 인해 풍도가 꺾였다 말하지 말게나
到此方知君子交 ⁵¹⁾	이쯤 되면 군자의 사귀를 알겠네

시인은 가시울타리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과 벗하고 있다. 국화는 늦은 가을

50) 참고로 왕유의 시 「九月九日憶山東兄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

51) 「偶吟二首」 『桐溪集』 145면.

에 다른 꽃들이 시들고 난 후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꽃을 피운다. 예로부터 국화는 서리에 굴하지 않는 굳은 節概를 지니는 선비에 비유했다. 매화 역시 군자의 매운 節概와 品格을 상징한다. 소나무와 대나무 역시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푸르기 때문에 선비의 절개로 일컬어져 왔다. 가시 울타리 속에 갇힌 시인은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들을 연하여 심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벗으로 대하고 있다.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이 군자의 풍도가 꺾인 것이 아니듯이, 그 속에 있는 자연을 벗이라는 인격체로 대하여 君子로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눈서리가 와도 변치말자는 약속에서 알 수 있듯이 동계가 생각하는 자연은 무위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보며 마음을 기르는 修身, 혹은 居敬의 한 방편으로의 자연이다. 자연을 벗 삼는 일이야 예부터 혹은 그 후의 유학자들에게 늘 회자되고 종종 실천도 하던 일이었다. 동계는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간다.

失怙今將二十年	아버지 여윈지 벌써 이십년
荒隳忠孝舊青氈	충효는 낡고 청전은 오래됐구나
在家在國無觀行	집에서 나라에서 볼만한 행실 없고
爲子爲臣有負愆	자식되고 신하되어 허물만 지었네
應怒訓辭懷裏失	노하여 하신 훈계 떠오르지 않지만
故施嚴楚夢中傳	때리시던 엄한 매가 꿈속에 전하였네
覺來驚汗兼悲淚	깨어보니 땀에다 슬픈 눈물까지 곁했으니
愆後懲前可忽施 ⁵²⁾	지난 일 거울삼고 닥칠 일 징계함에 소홀할 쟈가

꿈은 현실을 왜곡한다. 또한 문학에서 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된다. 그러나 동계의 경우 꿈에서조차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소를 올려 廢母殺弟라는 인륜의 변고로 인한 임금의 德을 해치는 것을 막아 보고자 하였다. 그것이 막혔을 때 사후 일처리를 너그럽게 하여 임금의 恩惠를 온전히 하고 德이 널리 펼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뜻한 바처럼 되지 않아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임금을 덕으로 인도

52) 「夢覺後揮淚而題」, 162면.

하는 것을 돕지도 못하고 도리어 죄를 입어 멀리 유배되어 버렸기에 충성도 부모에 대한 효도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허물만을 지었다. 부모의 가르침대로 이루어 낸 것이 없다.

靑氈은 대대로 전하는 舊物이나 세업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중국 쑤나라 王獻之가 齋室에서 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 물건을 죄다 훔쳐가려 하자 그가 누워 꿈쩍 않고 있다가, “도둑아, 청전은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거라.”하므로 도둑이 놀라서 도망쳤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⁵³⁾ 청전은 원래 매우 귀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동계는 오래 되었다는 것 말고는 의미를 갖지 못한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충성을 다하여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허공에 대고 외친 소리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군주에게는 忠을, 부모에게는 孝道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유배객들의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동계는 자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의 징계로 삼고 있다. 스스로를 책망하여 꿈속에서 매를 맞고 신하로써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사마천은 「太史公自序」에서 저술과 창작의 동기를 시세 불우자의 ‘發憤’에서 찾아, 詩書를 비롯 「離騷」등 주요 저작의 작자들이 모두 그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나 이를 펼칠 길이 없으므로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때의 憤은 현실의 불의나 모순에 그 원인을 두므로, ‘發憤’의 대상 또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모순이나 갈등의 차원으로 확대된다.⁵⁴⁾ 이 시는 지난 일을 경계 삼고 앞으로 닥칠 일을 징계한다는 사마천이 말한 시세불우자의 저술과 창작의 동기와 상통하고 있다.

동계는 유배 중에도 절의를 지키는 유학자적 모습을 보인다. 이때에 자신이 어리석고 혼미하므로 항상 깨워야 한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鼓鼓子라 자칭하기도 했다.⁵⁵⁾ 내적으로는 심성수양에 힘써서 책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붓을 들어 글을 이루어 냈다. 유배된 지 6년 되는 해에 이루어진 『德辨錄』은 그 성과물이다. 그 서문에서 동계

53) 『晉書 卷80 王獻之列傳』, 앞의 책, 539면.

54)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권필』, 태학사, 1999, 228-230면.

55) 『年譜』, 409면.

는 ‘옛사람이 곤궁에 대처한 도리를 경사에서 수집하고 전현의 말씀에서 채록하였으니, 위로는 西伯으로부터 아래로는 眞西山에 이르기까지 모두 59인이다. 비록 인품의 높고 낮음이 있고 언행에 옳고 그름이 있으나, 요컨대 마음을 경동시키고 성질을 참으며, 마음을 항상 긴장하고 환난을 깊이 염려했던 자취가 모두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경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이다.’⁵⁶⁾ 하였다.

동계는 강경한 자는 너무 과격한데 지나쳐서 원망을 줄여야 된다는 경계를 어기고, 나약한 자는 지저분하고 아첨하는 데 빠져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과격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면서 형통함을 잃지 않는 자는 오직 군자일 뿐이라고 하여⁵⁷⁾ 동계가 생각하는 군자의 이상적 모습을 곤란에 대처한 옛사람들의 흔적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서 동계가 생각하는 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계는 귀양지에서도 왕을 대하는 올바른 신하의 모습을 집요하게 추구한 것이다.

다음은 고요한 가운데 읊은 시 「靜中吟」이다

大靜城東影伴身	대정성 동쪽 그림자와 짝한 몸
梅枝竹色爭無塵	매화와 대나무 티 없이 맑구나
傍人莫笑生涯靜	사람들아 웃지 마소 내 생애 고즈넉하다고
欲向靜中求主人 ⁵⁸⁾	고요함 속에서 참 주인 찾고 싶구나

대정현 성 동쪽에 유배되어 있는 시인은 제 그림자와 짝할 만큼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매서운 혹한을 이겨낸 다음에야 매화는 봄을 알리며 꽃망울을 터뜨린다. 대나무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나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늘 푸르고 곧은 나무이다. 매화나 대나무는 예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군자들의 벗이면서 心性修養을 하는 선비들의 등가물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런 사군자들 중 매화와 대나무를 시 속에 끌어 와서 도학자로서의 자기수양을 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꽃을 피우는 매화 가지나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는 서로 물색을 다투지 않는다. 타고난 그대로

56) 「德辨錄序」, 182면.

57) 위와 같은 곳.

58) 「靜中吟」, 145면.

의 모습, 처한 상황 그대로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시인은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과는 단절된 유배지이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가시울타리 속에 있지만 서로 物色을 다투지 않는 자연을 닮아 담담하다. 사람들은 유배라는 상황으로 인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시인을 고즈넉한 생애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시인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매화나 대나무가 物色을 다투지 않듯이, 티끌 없는 깨끗함을 추구하듯이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고요한 속에서 참 주인을 찾고 싶다는 바람만 보인다. 세상을 경영하고픈 집착이나 인욕을 버린 모습을 보인다. 매화와 대나무라는 物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觀物의 정신이 돋보인다. 다툼도 먼지도 없다는 것은 대나무나 매화뿐만이 아닌 작가 자신의 투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를 버리지 않는 道學者의 구김 없는 마음자리가 보이는 시이다.

한 수 더 살펴본다.

清霜曉來重	맑은 서리는 새벽에 흙백 내리고
冷雨秋不晴	찬비는 가을이라 개이질 않네
馥發金英菊	향기는 노란 국화 꽃부리에서 피어나고
香生草泐明	맛깔스러움은 결명자에서 생겨나더라*
固知難獨立	진실로 알겠거니 홀로 섬이 어려운 줄을
自是樂天成	이제는 하늘이 이루어 준 것을 즐길 뿐이네
努力無虧損	노력하여 훼손하는 일 없게 해야지
隨時任悴榮 ⁵⁹⁾	때에 따라 피고 지는 일 맡겨두고서

*『국역 동계 정은 문집』에는 ‘향기는 황금색 국화에서 발하고/ 향기가 결명초라는 풀에서 나더라’로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의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였다.

자연의 섭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평생 直言과 直諫을 망설이지 않았던 동계였지만 인위적인 세상일은 어느 한 가지 뜻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맑은 서리가 서린 가을에 내리는 찬비를 보며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자연의 섭리임을 느낀다. 모든 꽃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서 피는 것이 국화이다. 이러한 국화가 서

59) 『謾成』, 156면.

리를 맞고 나니 그 향기가 진하게 퍼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결명자차를 찬 비 내리는 가을에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고 더욱 맛깔스럽게 느껴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을 서리는 작가가 고단하게 지나온 세상일이기도 하다. 시인은 出仕하는 영화도 맛보았고, 좌천이나 지금의 경우처럼 가시울타리에 갇힌 신세의 오욕도 다 겪었다. 찬비 내리는 가을에 국화를 바라보며 결명자차를 마시는 저자는 이제 하늘이 낸 것을 즐기겠다고 했다. 애써 세상과 맞서 보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몸소 겪었다. 신하된 자로서 바른 도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세상일 어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던 동계였다. 이제 저자는 천리에 순응하여 담담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2. 仁祖反正의 受容과 天命論

『桐溪集』을 읽다보면 인조반정 이후 동계의 행위는 얼핏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준다. 그것은 광해조 내내 유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에게 직간을 서슴지 않았던 동계가 반정 후에는 반정에 대한 일말의 회의도 보이지 않고 벼슬길에 나갔다. 그리고는 전 임금에게 했던 그대로 새 임금을 섬기면서 상소를 올려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즉위 후에 자신의 등극과정에서 공의 유무에 따라 賞罰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동계는 상을 받는 쪽에 포함되었다. 광해조의 공신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仁祖反正이 일어나고 節義를 지킨 인물로 가장 먼저 거론된 이도 동계였다. 이때 동계는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정은에게 주로 淸要職을 맡겼다. 동계의 이러한 행동은 ‘不事二君’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는 광해군 대에 시종 유학적 명분론을 주장했던 동계가 두 임금을 섬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은 건너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60) 『癸亥辭疏』, 206-207면.

이에 대한 설명은 「箕子受封朝鮮論」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箕子は 공자가殷나라의 三仁 중의 한 사람으로 칭송했던 전설상의 인물이다. 기자는 紂 임금의 숙부로 紂의 폭정을 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척하다가 노예가 되었다. 그는 무왕이 은을 정벌한 뒤 朝鮮侯에 봉해졌다고 한다. 이 전설에 따르면 기자는 은의 왕족이다. 그런데도 은을 멸망시킨 무왕의 책봉을 받아 조선후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행적은 공자가 三仁으로 거론했던 微子, 比干과는 다른 것이었다. 미자와 비간도 기자와 마찬가지로 은의 왕족이었다. 이중 미자는 주 임금의 同母兄인 紂가 폭정을 하자 은나라를 떠났다. 비간은 기자와 마찬가지로 주의 숙부였는데 주의 폭정을 간하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들은 조선후에 봉해진 기자와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은나라의 왕족이자 충신이었던 기자가 어떻게 주나라의 책봉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계는 그것은 오로지 천명 때문이었다고 한다. 천명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늘이 성현을 낳는 것은 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성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명을 받은 것이고, 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시키는 대로 되고 천명을 받기 때문에 그 몸의 출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몸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도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도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바이며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늘이 사사로이 나에게 부여할 수 없으며 내가 사사로이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처음에 죽지 못하게 하여 후세 성인에게 도를 전하게 한 것은 하늘의 뜻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끝에 관작을 봉하여 한 지역에서 도를 행하게 한 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다. 성현이 어찌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는가.⁶¹⁾

동계에 의하면 성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늘이 세상에 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의 출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로 동

61) 「箕子受封朝鮮論」, 193면. 天之生聖賢 爲傳道也 聖賢之生斯世 受天命也 爲傳道也 故其人之死生 天必使之受天命也 故其身之行止 不自由焉 非其身之不自由也 乃其道之不自由也 斯道也 天之所付於我 而我之所受於天者也 天不得私之而付於我 我不得私之而傳諸人也 故使其人不死於其始 而傳道於後聖者天也 使其人封爵於其終 而行道於一方者 亦天也 聖賢豈有一毫私意於其間哉

계는 기자가 조선의 侯로 책봉 받은 것을 설명하였다. 은나라의 왕족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8백년 역사의 은을 멸망시킨 주나라는 不共戴天의 원수라고 할 수 있다. 周천자를 섬기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간은 임금의 폭정을 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미자는 조상의 제사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나라를 떠났다. 기자는 그들과 같은 핏줄이고 도가 같은 사람이다.⁶²⁾ 그가 비간처럼 죽는 것이 편하고, 미자처럼 떠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을 몰라서 책봉을 받았겠는가? 동계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다.

아! 기자가 어찌 구차하게 주 나라 왕이 봉해주는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주 나라에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만 밝히고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버릴 사람이 있겠는가. 주 임금의 악행이 극에 달하여 종묘사직이 무너지려 할 때 기자가 죽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 채 기꺼이 노복이 된 것이 어찌 죽기 싫어서 그러했겠는가. 자신이 후세에 도를 전하는 것이 중하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마당에 무왕이 천하를 차지한 뒤에 함부로 하여 작은 절의를 지키려 했겠는가. 무왕에게 홍범을 전달한 뒤에 곧바로 죽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해주는 것을 받은 것은 모두가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었으니 하늘을 어기고 그 봉해준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⁶³⁾

기자가 죽지 않고 책봉을 받아들인 것은 기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이 명한 바 즉 천명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늘이 그 도를 무왕에게 전하고자 하니 (기자의)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굽혀서 홍범구주의 도리를 펼치게 한 것이다. 하늘이 동쪽 나라에 도를 행하고자 하니 다른 성을 섬기지 않으려는 충심을 보존한 채 무왕이 조선에 봉하는 것을 받게 하였으니 봉한 것은 무왕이 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봉한 것이며, 받은 것은 기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받게 한 것이다. 하늘의 뜻으로 봉하고 하늘

62) 『箕子受封朝鮮論』, 193면.

63) 『箕子受封朝鮮論』, 194면. 嗚呼 箕子豈區區焉以不受周王之封 明其不臣之心 而棄其天之所以與我者乎 當其紂惡貫盈 宗社將傾 而箕子之不死不去 而甘心於爲奴者 夫豈惡其死哉 以其身之有重於傳道 而不能自由也 然則其可自由於武王有天下之後 而受其小節也哉 其所以不即死於陳洪範之後 而受封於朝鮮者 莫非天之使然也 其可違天而不受其封乎

의 뜻으로 받았으니 그 봉한 것은 기자를 봉한 것이 아니고 그 도를 봉한 것이며, 그 받은 것은 무왕이 봉해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봉해준 것을 받은 것이다.⁶⁴⁾

무왕의 책봉은 무왕이 기자를 朝鮮侯에 봉한 것은 아니라 하늘이 도를 책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기자가 무왕의 책봉을 받은 것도 하늘이 책봉한 것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受封’은 두 임금을 섬긴 것이 아니다. 이 논리를 동계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동계는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도를 따라 행동했다. 광해가 ‘廢母殺弟’라는 인륜의 三綱五常을 어겼기 때문에 인조의 반정은 동계에게 있어 ‘신하가 임금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행하는 것으로 正當性을 얻는다.

광해군의 廢母殺弟는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정당성을 획득하는 大義名分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조반정은 천명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出仕는 천명을 따른 인조의 신하가 된 것이었다. 그는 광해군에게 임금의 잘못된 점을 면전에서 말하거나 소를 올리는 등 신하의 도리를 다했다. 인조조에도 광해군대와 마찬가지로 인성군에 대한 全恩說을 펼 것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直言과 直諫을 서슴지 않았다. 동계에게 있어 인조조에 출사를 한 것은 두 임금을 섬긴 불충이 아니라 천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동계의 천명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王呂當年雖失對	여씨를 왕으로 하던 당시에는 비록 실수였으나
安劉他日竟輸忠	뒷날 유씨를 안정시켰으니 충성을 다하였네
功能補過猶多議	공이 허물을 덮을 수 있는데도 말이 많으니
況是懂懂誤始終 ⁶⁵⁾	어리석게 굴다가 내내 잘못된 사람이야 말할 게 있을까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후의 난 당시 周勃의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 한 고조 사후 여후가 국정을 장악하고 여씨를 왕으로 봉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

64) 「箕子受封朝鮮論」, 194면. 是以天欲傳其道於武王 則屈罔爲臣僕之心 而陳洪範九疇之道 天欲其行道於東土 則存不事異姓之忠 而受武王朝鮮之封 封之也 非武王封之也 天封之也 受之也 非箕子受之也 天受之也 封之以天 受之以天 則其封之也 非封箕子也 封其道也 而其受之也 非受武王之封也 受其道之封也

65) 「周勃」, 147면.

시는 유방과 함께 유씨의 한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 살아 있었다. 아무리 여후라 하더라도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후는 陳平과 周勃에게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주발이 ‘고제가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자제를 왕으로 봉하였습시다. 이제 태후께서 稱帝를 하고 계시니 태후의 형제들을 왕으로 봉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주발이 여후 사후에는 다시 여씨들을 제거하고 한 나라를 안정시켰다.⁶⁶⁾ 한 나라가 여씨의 나라가 되지 않고 유씨의 나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발의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후 앞에서 여씨의 행위를 정당화해준 대답에 대한 시비는 후세에 두고두고 끊이지 않았다. 동계는 그런 논란을 일소에 붙이고 ‘공이 허물을 덮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주 국가에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충성의 절대 필요조건이다. 그것이 없으면 군주 국가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동계는 ‘不事二君’이 아니라 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천명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동계의 입장은 미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杯羹密擊誰輕重	잔치 때 은밀한 저격을 누가 문제 삼을까
成敗初非天意存	성패에는 애초 하늘의 뜻이 없었다네
亭長艤船應有以	오강의 정장이 배를 댄 것은 뜻이 있거늘
如何徑作劍頭魂 ⁶⁷⁾	어찌하여 지레 검두혼이 되었단 말인가

이 시에서 동계는 천명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보았는가? 鴻門宴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乾坤一擲의 승부를 겨루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시황제가 죽자 각지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항우와 유방의 세력이 강대하였다. 항우와 유방은 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함양으로 진군하였다. 유방은 항우보다 먼저 관중으로 들어가 함양을 점령하고 방비를 굳게 했다. 항우는 函谷關에 이르러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10만 군사를 홍문에 집결시키고, 그곳에서 잔치를 열고 유방을 청하여 유방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때 유방은 장량의 계책으로

66) 풍국초, 이원길 옮김, 『中國 上下 오천년사』 1,2, (주)신원문화사, 2004, 226면.

67) 『項羽』, 147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후에 천하를 차지하였다. 너무나 유명한 홍문연의 고사이다.

잔치 때 은밀한 저격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동계는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천의와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天意 未定’의 상태인 것이다. 항우가 패전하였을 때 오강의 정장이 배를 대놓고 강동으로 가서 후일을 도모하자고 하였는데 항우는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다. 이를 두고 동계는 아직 天意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지레 김두혼이 되었던 말인가’라고 탄식하고 있다. 시인은 항우가 힘은 산을 뽑을만하고 기운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명을 알지 못하고 지레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항우가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천의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장의 권유에 따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방이 승리를 한 것은 천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매우 다르다. 동계의 이러한 해석은 매우 특이하다 할 것이다.

呂后當年名位定 그 때 여후는 명위가 정해졌으니
敢稱兒女是無君 아녀자라 하는 것은 임금을 무시한 게지
叛形眞僞難難辨 반역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一語當誅也不冤⁶⁸⁾ 그 한마디 말로 죽어도 원망하지 못할 일

동계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의 독특한 역사적 관점에서 논하는 몇 편의 시와 글을 지었다. 이 시는 韓信에 대해서 쓴 것으로 한신은 한나라 초기 뛰어난 장수이다. 한신의 공으로 劉邦은 위, 조, 연, 제나라를 평정한다. 한신의 공이 지나치게 높아 군주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유방은 그를 꺼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당시의 흐름을 읽지 못한 한신은 자신을 제나라 왕으로 책봉해 달라고 유방에게 요구하였다가 끝내 화를 당하고 말았다. 한신은 여후와 蕭何의 꾀에 빠져 입궁했다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때에 한신은 “내가 괴통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아 마침내 아녀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바가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⁶⁹⁾ (吾悔不用蒯通之計 乃爲兒女子所詐

68) 『韓信』, 147면.

69) 사마천, 김원중 옮김, 『樊鄴滕灌列傳』, 『史記열전』, 민음사, 2007. 775-812면 참조.

豈非天哉) 라고 하였다. 한신은 자신이 죽는 것이 天意라고 한 것이다.

동계는 이와 관점이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후는 황후에 봉해져 명호와 지위가 이미 정해졌다. 다시 말하면 천명을 받은 것이다. 한신은 그런 황후를 일러 아녀자라고 했다. 이는 천명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며 따라서 ‘죽어도 원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계가 여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황후를 무측천과 더불어 폐출해야 할 악이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여후인데도 명위가 정해졌다는 것으로써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역이라는 形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천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이다. 그렇기에 시인은 아녀자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도 한신은 주살을 면하지 못하고 원망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시는 한신의 불충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천명의 소재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 응보를 받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동계는 반란의 진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말 한마디로 천명에 순응하는지 거스르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어쩌면 천명을 받은 왕의 비위를 거스르는 「甲寅封事」를 올렸다가 10여년을 섬에 갇혀 지낸 시인으로서 ‘천명의 소재를 모르고 함부로 날뛴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토로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桐溪는 광해군이 폐모살제라는 명분을 어겼기 때문에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벼슬을 하였다. 유학적 관점에서 황후가 뒤에서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 시에서 여후가 명위에 정해졌으니, 그를 가리켜 아녀자라고 한 것을 가지고 죽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인가. 그것이 임금을 무시한 것이라면 여후가 뒤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둔 임금은 명분에 합당한 통치를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동계의 大義名分은 당대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동계가 생각하는 大義名分의 正當性은 (여후의) 행위의 정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리가 정해지면 그것으로 획득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동계의 천명론은 매우 ‘現實 受容的’인 느낌이 들며, 동계의 天命論은 현실 수용을 正當化하는 감이 있다. 동계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八百諸侯九亂臣	제후가 팔백이요 난신이 아홉이었으니
鷹揚牧野豈無人	목야에서 무위를 떨칠 때 어찌 사람이 없었으랴
天生呂望非他意	하늘이 여망을 내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只爲扶持二子身 ⁷⁰⁾	단지 두 사람을 부지하기 위해서였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폭군 紂를 치려고 할 때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팔백 제후가 모여들었다. 천명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할 터이다. 그런 자리인 목야에 고죽국의 왕자였지만 왕위를 버리고 떠난 백이와 숙제가 나타났다. 백이와 숙제는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도 지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된 자가 군주를 죽이는 것을 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⁷¹⁾하고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언하였다. 이때 좌우의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강태공은 ‘이들을 의로운 사람입니다’하고는 부축하여 돌아가게 했다. 이 시는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것인데, 동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늘이 강태공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뜻은 바로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결론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계의 천명론에 입각해 보자면 태공은 상나라 정벌 당시에도 천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와 숙제를 살렸다고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태공이 백이와 숙제를 살린 행동에 대해서 동계는 「太公扶伯夷論」이라는 글을 써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하늘의 주벌로 비로소 무왕이 주를 칠 때 드넓은 목야에 모인 주나라의 군사가 숲과 같았는데 말고삐를 붙들고 만류한 의로운 말이 오히려 엄정하였으나 좌우에서 무기를 이미 빼어 들어 義士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으니, 태공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였겠는가. 그의 생각에, ‘節義란 천하의 큰 법인데 이 사람이 능히 부지하고 있으며, 名分이란 국가의 막중한 도구인데 이 사람이 능히 부지하고 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천하의 큰 법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떠나면 국가의 막중한 도구가 실추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차마 앉아서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천하국가를 위

70) 「呂望」, 147면.

71) 사마천, 앞의 책, 「伯夷列傳」, 63면.

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겨 이에 부축하고 가서 죽음을 모면하게 하였던 것이다.⁷²⁾

태공의 기병은 ‘天誅’ 즉 하늘의 명을 받은 거사였다. 그렇다면 伯夷와 叔齊의 행위는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공은 伯夷와 叔齊의 大義도 인정하였다. 태공은 두 大義名分이 충돌했을 때 백이와 숙제를 살려줌으로써 은나라 정벌의 대의명분과 신하의 도리라는 대의명분을 다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계는 이 모순된 논리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태공이 백이와 숙제를 부축하여 ‘천하의 큰 법’이 만세에 드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태공이 두 사람을 부지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무왕이紂를 치고 周나라를 세웠을 때 절의와 명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태공이 부축한 두 신하의 일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시열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이를 부축해서 그의 목숨을 구한 태공의 행동은 명목으로나마 자신이 군신간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 인물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성공적인 처신이었다.”고 한 바 있다.⁷³⁾ 타당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적인 행위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군신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태공의 도리이다. 왜냐하면 천명이 주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부차적인 소득에 지나지 않는다. 동계는 군신간의 의를 저버리지 않은 처신을 한 백이처럼 신하로써의 도리인 임금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지키려고 하였다.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직언과 직간을 서슴지 않았던 당시에도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를 받았던 동계의 일관적인 의식은 천명을 받은 임금에게 신하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다.

동계에게 天命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혹은 왕권의 교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도 天命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72) 「太公扶伯夷論」, 192면. 天誅造攻之時 朕載自毫之日 洋洋牧野 其會如林 而嚇馬不行 義辭猶嚴 則左右之兵已抽 而義士之命其殆矣 爲太公者 當作如何懷也 以爲節義者 天下之大閑 而斯人也能扶之 名分者 國家之重器 而斯人也能扶之 斯人之亡 而天下之大閑壞矣 斯人之去 而國家之重器墜矣 則吾何忍坐視其死 而不爲天下國家憂乎 於是扶而去之 使之免焉.

73) 정시열 「桐溪 鄭蘊의 論三篇 試探 - 「張良不諫易太子論」「太公扶伯夷論」「箕子受封朝鮮論」을 대상으로-」, 『語文學』 제16집, 2012, 224면.

茅簷雨滴漸冷冷	처마 끝에 듣는 빗방울 점점 더 차가운데
瘴氣承風滿海城	장기가 바람을 타고 바닷가 성에 가득하여라
萬事算來孤笑發	세상만사 따져보니 웃음이 절로 나고
衆脣誼處寸心明	못사람들 입방아 시끄러워도 마음은 밝아라
早將生死歸穹昊	일찍이 생사는 하늘의 뜻대로 귀결될 터이니
肯把榮枯惱性情	영화와 쇠락을 즐겨 잡으려 성정을 괴롭게 하리
看盡暮雲爭北向	저녁구름이 북쪽으로 치달리는 것을 끝까지 보았다만
明朝分散又何營 ⁷⁴⁾	내일 아침에 흩어지면 또 무엇을 이룰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했으니 계절은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축축한 독기는 바닷바람을 타고 시인이 머무는 성안에 가득 채운다. 찬 비 내리고 습한 기운 가득한 유배지에 앉아서 세상사는 일들 헤아려 보니 그저 웃음만 나온다. 유배지에 처한 자신에게 못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시끄럽게 입방아를 찧어도 시인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생사는 人命이 아닌 天命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시인은 신하의 도리를 다했으니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던지 살아 돌아가는 몫은 하늘의 정해진 바인 천명을 따를 뿐이다. 애써 영화다 고락이다 마음에 두어 타고난 마음의 근본을 헤치지 않겠다고 한다. 대궐로 향하는 저녁 구름을 눈으로 끝까지 쳐다보며 그 곳을 향해 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 그러나 구름이 흩어지고 나면 손에 잡히지 않듯이 그런 소망을 이루려고 한들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出家何事亦遷流	출가한 이가 어이하여 귀양을 다 오나 했더니
自說經今已五秋	벌써 오년이 지났다고 말을 하네
香岳瀛峯俱異境	묘향산 한라산 모두가 특이한 경치요
閑居謫處總清遊	한가히 지내거나 귀양 사는 것 모두 다 좋은 유람
雪封洞戶塵蹤絕	동구에 눈이 덮여 세인의 발길 끊기고
雲鎖禪門暮磬幽	선문에 구름이 짙어 저녁 종소리 그윽하다
莫怪南冠拘繫苦	남쪽에서 죄수로 묶여 고생한다 괴이치 말라

74) 「雨中謾成 丁巳」, 163면.

只緣天械未曾休⁷⁵⁾ 하늘의 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럴 게다⁷⁶⁾

동계의 시 중에서 특이하게 유배 온 승려에 대해서 쓴 시이다. 속세를 떠나 출가한 승려가 어인 일로 세상사 일인 유배를 왔느냐고 시문을 열었다. 승려는 유배된 지 하마 오년이나 되었다고 말을 한다. 스님이 거쳐하던 묘향산도 유배지인 한라산도 모두 다 특이한 경치일 뿐이라는 말은 세속인이 생각하는 유배지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유배지의 마을에 눈이 쌓여 길을 막고 사람들 발길이 끊기니, 구름이 가로막은 선문처럼 저녁 종소리가 더욱 그윽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유배지의 환경도 스님들이 거쳐하는 절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제주에 유배되어 고생하는 것을 괴이치 말라고 한다. 그 근거는 하늘의 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천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배지에 묶여 있는 죄인의 느낌보다 때를 기다리는 선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동구에 눈이 덮여 세인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은 소외감의 다른 표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소외감은 스스로가 내쳐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자신을 내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회구하는 것이다. 동계가 현실 수용적인 천명론을 펴고 아무런 회의 없이 반정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외감의 추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如眉漸如鏡	눈썹 같은 달 점점 불어 거울 같더니
三五方就盈	보름 되니 가득 찼구나
盈而虧必至	차고 나면 반드시 기울게 마련
虧則盈還生	이울면 또다시 생겨나 가득차리니
天道且如此	천도가 또한 이와 같거니
人情尤可明	인정은 더욱 분명하더라
莫羨彼之盈	저것이 찼다고 부러워 말고
莫嘆此或虧	혹 이것이 이울었어도 탄식하지 말지니
嘗聞天與鬼	일찍이 들으니 하늘과 귀신은

75) 『贈謫僧』, 162면.

76) 『국역 동계 정은 문집』에서는 ‘작록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럴 게다’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이 직역하였다.

盈者常害之 가득 찬 것을 항상 해친다더라
 見月反吾人 달을 보고 나를 돌이켜 보면
 一理君其知⁷⁷⁾ 같은 이치란 것을 그대는 알리라

초승달이 생겨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차오른다. 보름이 되자 가득차고, 차고 난 후에는 조금씩 덜어낸다. 시인은 가득차면 이울게 마련이고 이울면 저 달처럼 또 차게 되는 것이 천도라 한다. 사람의 처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하지도 이울었다고 탄식하지도 말라고 한다. 그것은 이울면 차게 마련이고 가득 찬 것은 하늘과 귀신이 항상 해친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 근거로 달과 시인 자신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순환, 만물의 차고 기우는 법칙을 끌어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위로하고 있다. 앞의 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은 이 시에서 동계는 차고 기우는 것을 탄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하늘과 귀신이 찬 것을 헤치기 때문이다. 차고 기우는 달을 보고 나를 생각해 보면 차고 기우는 처지 즉 영화롭던 옛날과 지금의 귀양객 신세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를 보면 동계의 현실 수용적인 천명론은 유배지에서부터 양성된 것이며 고난을 겪으면서 쌓인 깨달음이 깊게 느껴진다.

동계의 천명론은 꼭 정치적 차원에서만 운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천명은 그의 개인적 삶에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저자가 유배 중에 70세의 나이로 유배지에 있는李大期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천명을 편히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時와 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조물주가 어르신을 훌륭한 분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까. … 양쪽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서로 물을 것이 없고, 오직 義로써 命에 대처하고 만나는 데에 따라 편안히 여기며, 조용한 때에 옛사람의 글을 펼쳐보고 즐거워하면서 시름을 잊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실로 환난을 견디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⁷⁸⁾

77) 「見新月」, 169면.

78) 「與李丈 大期 書」, 199면. 其亦時命使然耶 仰或造物者 欲玉吾丈于成耶…兩地休咎 不須相問 惟當以義處命 隨遇即安 時於靜中 披閱古人書 樂而忘憂 此實耐患之第一條也.

유배 선배가 후배에게 충고해 주는 것 같은 이 편지글에서 동계는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친절하게 말하고 있다. 글을 읽어보면 절의를 행하고 난 후의 일은 명에 맡겨 편안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저자는 유배지에서 특히 옛사람의 행적을 더듬어서 환난에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형이 머물고 있는 산골은 풍토가 바다와 다르니, 생활하는 여가에 경전과 사서 중에서 얻은 것이, 분주하던 지난날에 비추어 보면 훨씬 향상되었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이 잠시라도 끈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능숙하지 못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일이란 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禍福이 닥쳐오는 것도 智力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순순히 받아들여서 편안히 여기기를 운명처럼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서로 힘써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⁷⁹⁾

이 편지에서도 동계는 천명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명은 인간의 지력으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순순히 받아들여서 운명으로 편안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오면 동계의 천명론은 매우 편리한 사고의 기제가 되며 그의 만년 마음의 평화도 여기에서 확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3. 호란과 명·칭 교체기와 華夷論

광해조에서 벼슬을 하면서 그는 시종일관 유학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광해의 廢母殺弟를 비판하고, 그 일을 직접 실행한 자들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仁祖反正이 일어난 후 해배되자 동계는 반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말의 회의조

79) 「與吳正言翼承書 丙辰仲夏九日」, 200-201면. 兄所住峽中也 風土不并海中 想存息之餘 所得於經史中者 視前奔忙之日 不啻萬萬 安知天不欲窮之於斃 增益其所不能也…凡事無非命也 禍福之來 非智力所能避 但當順受 安之若明 此吾儕今日相勉之道也.

차 보여주지 않고 벼슬에 나아갔다. 이것은 분명 ‘忠臣不事二君’이라는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에 대하여 ‘現實 受容的인 天命論’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인조반정 이후 동계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였는데 이것이 앞의 천명론으로 설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계의 생애전체 또는 반정 이후 동계의 삶을 ‘現實 受容的인 天命論’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全遼失守染羶腥	요동을 지키지 못해 비린내로 물들었으니
天下明知破竹形	천하가 파죽의 형세를 분명히 알더인데
蹈海無聞一士死	한 선비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말 들리지 않으니
荊頭忍見千群迎	많은 사람들 변발하고서 맞이함을 차마 보겠는가
皇靈應急興帥問	황령이 응당 급히 군사를 일으켜 위문하리니
藩國惟殫拱極誠	번국은 오직 지극 정성을 해야 하리라
誰識島中幽繫客	누가 알겠는가 섬 가운데 갇혀 있는 나그네가
誓心終不左衽生 ⁸⁰⁾	끝내 좌임하고 살지 않으리라 맹세하는 줄

이 시는 遼左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함을 느껴서 지었다고 한다. 1619년 3월에 皇朝의 제독 劉珽 등이 牛毛嶺에서 싸우다 敗沒하고 오랑캐에게 항복한 소식을 듣고 시를 지은 것으로 본집과 속집에는 보이지 않고 제목도 없이 연보만 전한다. 동계는 제주에서 위리안치 중에 요동을 지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것이다. 이때에 조선은 아직 후금의 침략을 당하기 전이다.

요동이 허무하게 오랑캐에 넘어가 버렸다. 오랑캐의 기세가 破竹之勢여서 천하가 그 말발굽에 짓밟힐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다. 이제 요동은 오랑캐의 땅이 되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랑캐처럼 변발을 하고 살 것인가. 동계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황제가 급히 군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번국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번국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조선도 군대를 일으켜 참전을 해서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80) 『年譜』, 410면.

요동을 지키지 못했는데 멀리 제주도에 있는 시인이 좌임하고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요동의 사태이지만 머지않아 우리 조선도 좌임을 하는, 다시 말하면 오랑캐의 침략을 받을 것으로 동계는 생각하였다. 동계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좌임을 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한다.

이것은 동계가 요동 함락을 남의 나라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계에게 명은 단순히 천명을 받은 상국에 지나지 않는 나라가 아니다. 번국이다. 다음 시는 명나라에 대한 동계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免魚東土俱誰人	우리나라가 어육을 모면한 것이 누구 덕인가
喪考悲均普率民	부모상을 당하듯이 모든 백성이 슬퍼하였네
天啓新元神繼聖	천계라는 새로운 연호 신성함을 계승하였으니
皇基鞏固億千年 ⁸¹⁾	황제의 기틀 공고하여 억만년을 가소서

동계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명군이 조선을 도와 군사를 보내온 것을 두고 부모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보았다. 이 시에서 말하는 어육을 모면하게 했다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신종이 붕어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부모상을 당한 듯이 슬퍼하였다고 하였다. 1620년 7월에 신종이 붕어하고 광종(光宗)이 황제의 자리를 이었다. 광종이 한 달이 지나 붕어하자 희종황제가 즉위하여 연호를 天啓로 바꾸었다. 동계는 이 소식을 1621년 2월에 듣고 시를 남겼다. 연호를 천계로 바꾼 것은 신성함을 계승하였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기틀이 억만년 동안 가기를 기원한다.

동계는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광해조에 주로 임해군과 영창대군에 대하여 全恩說을 펼 것을 주장하였다. 인조조에도 인성군과 폐세자에 대하여 전은설을 펼 것을 주장하였다. 동계는 명나라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로 이해하였다. 명은 부모의 나라이다. 명의 황제 죽음은 곧 부모의 죽음이다. 동계가 생각하는 명에 대한 조선은 바로 이러한 예속국이다. 이것이 동계가 생각하는 번국이다. 번국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책봉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예속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조선은 지극 정성을

81) 「題天啓新曆」, 148면.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참전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시는 빗속에 감회가 있어 지은 것으로 후금과 화친을 주장하는 신하들을 賣國人으로 보고 있다.

宋史曾看賣國人	송사에서 일찍이 매국인을 보았는데
不圖今日姓皆秦	오늘날 모두가 진씨가 될 줄은 몰랐네
朝廷自謂奇謀足	조정에서는 기발한 모의가 흡족하다 하고
司直空勞短筭陳	사직은 부질없이 짧은 차자만 진달하네
風雨小庭搔客鬢	비바람 치는 작은 뜨락에서 나그네 머리를 긁고
夢魂中夜繞萱春	한밤의 몽혼은 어머니를 찾아가네
可憐杜甫誠愚矣	가련한 두보여 참으로 어리석어
稷契初年誤許身 ⁸²⁾	초년엔 자신도 직설처럼 되겠노라 하였으니

책으로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의 조정 인사들은 모두가 진회 같은 매국노들이다. 진씨는 秦檜를 말한다. 그는 금나라와 손을 잡고 충신 岳飛를 죽였다. ‘모두가 진씨’라는 말은 지금의 조정대신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랑캐와 화친 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를 주장하는 대신들은 그것이 기발한 계책이라고 한다. 대신들이 차자를 올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척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주장한다. 말이 좋아 화친이지 실상은 항복이다. 이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인은 자신이 ‘비바람 치는’ 작은 뜨락에 서 있는 나그네로 인식한다.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다분히 퇴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는 두보가 稷과 契처럼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는 각오를 했던 것을 어리석다고 비웃는다. 이것은 逆說이다. 그러나 단순한 퇴영이나 역설이 아니다. 두보가 실제로 어리석기도 했었다. 두보는 초년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安祿山의 난리에 쫓겨나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 훌륭한 신하가 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杜甫의

82) 「雨中有懷」, 165면.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보가 어리석다고 한 것은 결국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기도 하다.

동계가 염려한 대로 오랑캐의 불은 요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내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黑牛兼白馬	검은 소에다 흰 말을 잡으니
腥血滿盤股	비린내 나는 피 쟁반에 가득
相國無脾病	상국은 속이 뒤틀리지도 않고
謀臣有喜顏	모신은 기쁜 안색 짓는구나
侏離談禮式	주리들이 예식을 말하고
犬羊雜衣冠	짐승들과 사람이 섞였어라
東海非難蹈	동해에 빠져 죽는 것 어렵지 않다만
朝門望眼寒	83) 조정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구나

우상 吳允謙 등이 오랑캐 사신 劉海와 강홍립과 같이 검은 소와 흰 말의 피를 받아 마시고 화친 맹약을 맺었다. 동계는 이 일에 감개하여 위의 시를 남겼다. 검은 소와 흰말은 맹약을 맺을 때 쓰는 犧牲物이다. 도무지 군신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오랑캐와 만나 피로 맹약을 하니 신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린내가 가득하다. 나라 관리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 상국은 비린내 나는 피를 마시면서 속이 뒤틀리지도 않느냐고 시인은 일침을 가한다. 화친을 모의하면서 신하들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예식을 말할 수 없는 오랑캐들이 예를 말하고 짐승과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한다. 오랑캐를 짐승으로까지 보고 있다. 세상이 통곡해도 시원찮을 일로 기뻐하고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중련은 戰國시대 齊나라의 高士이다. 그가 趙나라에 가 있을 때 秦나라 군대가 趙나라의 서울인 邯鄲을 포위하였는데, 이때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은 “진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 하였다.⁸⁴⁾ 시인은 방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동해에

83) 「三月三日左相吳允謙等與胡差唾血同盟」, 158면.

84) 사마천, 앞의 책, 「魯仲連·鄒陽列傳」, 561면.

빠져 죽겠다던 노중련처럼 목숨을 내놓는 것 두렵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화친하고자 피를 마시는 조정의 신하들을 바라보는 눈은 시리기만 하다. 侏離들 즉 오랑캐들이 禮式을 말하고 짐승들이 의관을 입고 앉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때 시인은 죽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였다. 오랑캐에게 항복할 나라를 생각하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다.

吾東奉朔幾千齡	우리나라가 臣服해 온 지가 몇 천 년인가
削去皇元不忍聆	명나라 연호를 삭제하란 말 차마 들을 수 없노라
堂廟政應援義斥	묘당에서는 응당 의리를 들어 배척하겠지만
微臣猶恐脅和成	힘없는 나는 외려 협박으로 화친을 이룰까 두렵네
王師退步渾忘戰	왕사는 퇴각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猛將臨危最欲生	맹장은 위기에 닥쳐 가장 살고 싶어하누나
畢竟中興誰可辦	필경에는 누가 중흥을 이룩하여서
箕封不作左衽氓 ⁸⁵⁾	우리나라를 오랑캐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할까

이 시는 천계라는 명나라 연호를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강개하여 지은 시다. 명나라의 신하인지가 오래되었는데 황제의 기원을 삭제하라는 말 차마 듣지 못하겠다고 시상을 열었다. 조정은 의로움을 가르쳐야 하고 후금의 요구를 배척해야 마땅하건만 그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미천한 신하인 시인은 위협으로 화평을 이루자고 할까 두렵다고 했다. 임금과 조정을 지켜야 할 군사들은 물러나 싸움을 잊고 지내고, 싸울 때 가장 용맹하게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장수는 오히려 적을 만나 가장 살고 싶어한다고 질책하였다.

좌입은 웃옷을 입을 때 오른쪽 섯이 왼쪽 섯 위에 가도록 여미는 것으로 한족이 이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흥할 계책을 누가 내어서 우리나라가 오랑캐의 손아귀에 빠뜨리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시이다.

다음은 임금이 몽진해 있는 남한산성에서 지은 시이다.

85) 「聞胡差劉海等要削天啓年號」, 166면.

炮聲四震如雷動	대포소리 사방에서 진동하니 천둥 같고
撞破孤城士氣洶	외로운 성이 깨어지매 사기가 흥흥하네
惟有老臣談笑聽	오직 담소를 듣는 듯한 노신이 있어
擬將茅屋號從容 ⁸⁶⁾	초가집에 앉아 조용히 죽기로 결심했네

대포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사방에서 들린다. 오랑캐에 포위당한 성이 파괴되어 사기마저도 떨어졌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늙은 신하가 있다. 그 늙은 신하 곧 시인은 오랑캐에게 죽더라도 성을 나가지 않고 끝까지 성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포소리마저도 담소를 듣는 듯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이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척화를 주장한 자기의 뜻을 굽힐 의향이 없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결심하고 있다.

여운필⁸⁷⁾은 이 시를 두고 ‘남한산성이 포위된 가운데 적의 포격을 받아 아군의 사기가 떨어진 극악한 상황에서도, 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조용하여 담소하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老宰相을 조롱하고자 한 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이틀 뒤 갈천 선생의 묘갈명을 초하는 글에 보면 ‘死境에 이르러서 진실로 붓을 잡을 뜻이 없지만 (중략)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는 이유로 筆削하기를 어려워 말라’⁸⁸⁾등 연보를 살펴보면 시인의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年譜」에 의하면 다음 시는 앞의 시보다 4일 전에 지어졌다. 여운필⁸⁹⁾은 이 시를 두고 자결을 암시하였다고 보고 있다. 연보의 앞 뒤 상황에서 보듯이 앞의 시 역시 老宰相을 비웃는 것이기 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生世何嶮巖	세상이 너무도 험난하여
三旬月暈中	포위 속에 한 달을 지냈네
一身無足惜	이 몸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86) 「山城 南漢」, 150면.

87) 여운필, 앞의 글, 59면.

88) 「年譜」, 426면. 到此死境 固無意於把筆 (중략) 汝等勿以我死而難於筆削.

89) 여운필, 앞의 글 60면.

千乘奈云窮	천승의 나라 운명 다함을 어찌할까
外絕勤王帥	밖으로는 근왕병이 끊어지고
朝多賣國兇	조정에는 매국노가 많구나
老臣何所事	늙은 신하 무엇을 일삼으랴
腰下仍霜鋒 ⁹⁰⁾	허리에 흰 칼만 차고 있을 뿐

이 시 역시 남한산성에서 지은 시로 전쟁으로 인한 험난함을 말했다. 포성 속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자신이 죽어도 아깝지 않지만 천승의 나라가 운명의 다함을 어찌하겠냐고 한다. 임금이 몽진해 있는 산성에 밖으로는 임금의 병사인 근위병이 끊겼고 조정에는 오랑캐의 신하가 되자는 매국노만 많다고 한탄한다. 시인은 늙었지만 허리에는 서릿발 같은 칼을 차고 있다고 했다. 허리에 서릿발 같은 칼을 차고 있는 시인은 늙은 신하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차고 싸우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라 운명이 오랑캐 손에 넘어가면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자결을 암시한 대목으로 보인다.

동계는 崔鳴吉과 李弘胄 등이 국서를 가지고 오랑캐 진영에 나가기로 하자 분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衣帶贊」을 지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大駕가 나가서 항복하려고 하니, 신하가 몸을 내버림은 바로 이때일 것이다.”⁹¹⁾ 하였다. 그는 편지를 봉함하여 의대 가운데에 두고 새벽에 일어나 통곡하고 이불과 베개를 정돈한 다음 佩刀로 자결하였다.

揮刀初期一死過	칼을 휘두르던 때에는 한 번 죽고 말리라 여겼더니
如何殘命尙頑然	어찌자고 남은 목숨 이다지도 모질단 말인가
仲連高潔終難跂	중련의 고결함을 종내 따를 수 없더라도
元亮田園可省愆 ⁹²⁾	원량의 전원이면 허물을 줄일 수 있으리라

저자는 나라와 임금의 치욕을 보고는 죽음을 달게 여겨 자결했으나 侍者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의 자결이 알려지자 임금도 어의를 보내 치

90) 「山城」, 159면.

91) 「南漢山城衣帶中寄諸兒」, 311면. 大駕出降 臣子損躬 此正其時.

92) 「偶吟」, 150면.

료하게 하였다. 신하가 어찌 죽음을 더디 하라는 시인의 말처럼 자결 할 때는 빨리 죽어서 인을 이루리라 했지만 그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오랑캐에게 황제를 칭하느니 동해에 빠져 죽겠다던 魯仲連의 말을 실행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기열전에 의하면 노중련은 선비로서 본분을 지킨 인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노력했고 본인은 청빈한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벼슬도 지위도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뜻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실천했으며 제후들에게는 굽히는 일이 없었던 인물⁹³⁾이라고 한다.

동계는 그런 노중련의 고결함도 따르지 못했다. 이제 저자는 죽음으로써 인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으니 원량 즉 陶潛처럼 살겠다고 한다. 陶潛은 부귀를 누리면서 남에게 굽신거리는 것보다 빈천하더라도 자유롭게 살겠다고 인물이다. 임금을 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신하된 자가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없었으니 신하의 도리를 저버린 셈이다. 시인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허물을 줄이겠다고 했다. 절개를 굽히지 않고 강직했던 인물들을 들며 동계도 그들의 뜻을 본받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계는 임금이 욕을 당했는데도 신하의 죽음이 너무 늦었으니 무슨 심정으로 남들과 살며 처자의 봉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고 덕유산에 은둔하였다. 덕유산의 한 구역인 某里에 은거하며 산전을 일구어 스스로 농사지어 살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동계가 지은 「某里鳩巢記」에는 보다 분명하게 은거한 뜻이 드러난다.

의도가 있어서 은거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은거한 것이다. 은혜를 탐하고 관록을 절취하여 나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은 모르면서 말은 시대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행동은 남들에게 신뢰받지 못하였다. 나이만 벌써 늙고 몸까지 병이 들었으니, 비로소 세상에 버림받은 줄을 알고 부득이 물러난 것이다.⁹⁴⁾

임금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신하의 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녹을 받는

93) 사마천, 앞의책, 「魯仲連·鄒陽列傳」, 557면.

94) 「某里鳩巢記」, 177면. 非有所爲而隱也 猶有羞惡之心而隱者也 叨 恩竊祿 知進而不知退 言無補於時 行不信於人 年既老矣 身又病矣 始見棄於世 不得已而退.

선비는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동계는 나라에 일이 있을 때 마다 잇속을 좇아 무리를 이루며 당의 이로움을 취하기보단 직간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직간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거나 쓰이지 못했다. 廢母殺弟도 斥和도 모두 동계의 뜻과는 어긋났다. 그러한 과정에서 스승과의 관계도 黨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많은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동계를 대했다. 노경에 이르렀고 병마져 들었으니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에 버려졌다기보다 동계 스스로 은거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동계는 청인이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 장수 유립 등을 선봉으로 삼아 椴島를 도륙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부모 같은 명나라 군사가 유립 등의 손에 패배당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였다. 尹煌 등이 척화를 주장하다가 죄를 얻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남한산성의 일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한 일이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명나라 군사를 함께 공격한 일로 말하자면 사대부들은 의리상 세상에 설 수 없을 것이다.”⁹⁵⁾ 하였다.

동계는 누구보다 척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명을 받들었던 사대주의적 인물이다.

崇禎年號之於斯	송정이라는 연호가 여기에서 그쳤으니
明歲那堪異曆披	내년에는 어찌 다른 책력 펼치겠는가
從此山人尤省事	이제부터 산골사람 일이 더욱 줄었으니
只看花葉驗時移 ⁹⁶⁾	단지 꽃과 잎을 보고 계절 바뀜을 알리라

이 시는 나라에서 皇明의 책력을 사용하지 않자 애통하게 여기고 지은 것이다. 명나라가 망한 것은 1644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황명의 책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시는 1637년 지은 것으로 나라에서 皇明의 책력을 사용하지 않자 崇禎十年曆에 이 시를 짓고서 명나라의 연호가 쓰이지 않음을 슬퍼하였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새 책력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父子의 恩惠로 명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저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가 청에 항복하려 할 때에도 명나라에서 받아

95) 『年譜』, 428면.

96) 『書崇禎十年曆書』, 150면.

300여년 전해온 玉璽를 내주지 말 것을 간청한다. 또 명나라를 공격할 군사의 원병을 요구할 것이니 반드시 물리치라고 한다.

최명길은 이미 전하로 하여금 신이라 칭하고 나가서 항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신하는 임금에게 그저 따르는 것만으로 공순함을 삼을 것이 아니라 간쟁할 일이 있으면 간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들이 만약 황명의 인장을 달라고 요구하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祖宗으로부터 이 인장을 받아서 사용한 지가 지금 300년이 되었다. 이 인장을 마땅히 명나라 조정에 환납해야지 청나라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주장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중국을 공격할 군사를 협조하라고 요구하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중국과는 부자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청국도 잘 알 것이다. 아들에게 아버지를 공격하라는 것은 倫紀에 관계된다. 비단 공격하는 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라고 시킨 자도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교활한 저들이지만 필시 양해할 것입니다.⁹⁷⁾

이것은 동계가 자결을 시도한 3일 후에 올린 차자이다. 인조가 오랑캐에게 稱臣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자결하였지만 괴이하게도 목숨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적어 올렸다. 이처럼 동계는 崇明排淸의 사상을 初志一貫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此日幽潛未或非	오늘 그옥이 숨어 지냄이 잘못된 일 아니거늘
況耕無稅可療飢	하물며 세금 없이 농사지어 굶주림 달랠에랴
爾曹莫歎臨年苦	너희들은 노년에 고생한다고 탄식하지 말거라
志遂身安道亦肥	뜻을 좇아 몸을 안거하니 도 또한 살찌노라

登山採蕨應知死	산에 올라 고사리 캐는 것에 응당 죽을 줄 알고
因樹爲家亦豈安	나무에 기대어 집을 이룸 또한 어찌 편안하랴만

97) 「四筍」, 237면. 鳴吉既使 殿下稱臣出降 君臣之分已定矣 臣之於君 不徒以承順爲恭 可爭則爭之可也 彼若求納 皇明之印 則 殿下當爭之曰 自祖宗受用此印 今將三百年 此印當還納於明朝 不可納於淸國云 彼若求助攻天朝之軍 則 殿下當爭之曰 天朝父子之恩 淸國亦知之矣 教子攻父 有關倫紀 非但攻之者有罪 教之攻者 亦不可云 則彼之凶狡 亦必諒之矣.

當日未聞諸子沮 당시에 자식들이 저지했던 말 듣지 못했으니
從來孝道在承歡⁹⁸⁾ 예부터 효도란 뜻을 받드는 것을 기뻐하나니

이 시의 첫수는 연보에만 보인다. 연보에는 「示諸子」 두 수로 되어 있으나 본집에는 둘째 수만 들어가 있다. 동계는 70세 되는 해 3월에 모리로 들어갔다. 풀을 엮어 집을 만들고 흙을 쌓아 침상을 만들고 某里鳩巢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산밭을 개간하여 기장과 조를 심어 스스로 생활하였다. 이 모습을 본 자식들이 거처와 음식이 불편하고 거침을 걱정해서 일컬을 만한 泉石이 없음을 핑계로 다른 곳에 정사를 옮겨 지으려고 하였다. 동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며 이 시를 지었다.

저자는 숨어서 지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서 此日은 조정에서 황명을 쓰지 않고 오랑캐라고 믿는 청에 대한 신하의 예로 조선이 항복했기 때문에 조정에 설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백이숙제처럼 은거에 들어간 것을 뜻하고 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에 나라에 내는 세금도 없다. 시인이 믿는 대의명분이 사라진 세상에서 은둔하는 것이 자신의 뜻에 완수되고 도에 넉넉하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여기기에 자식에게 탄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는 백이숙제처럼 고사리를 캐어 먹다 끝내는 죽음에 이르리라는 것을 알고, 나무에 의지하여 지은 집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임금에게 간언하다 수양산에 들어간 한 무제 당시에 자식들이 백이와 숙제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도를 지키는 명분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기에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한다.

동계는 자결에서 살아난 뒤에 임금을 찾아 문안을 하거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왕사의 일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으며 스스로 일신을 깨끗이 하여 더러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하의 의리가 사라졌다고 동계를 죄줄 것을 요구하던 신하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인조는 그냥 두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李敬輿는 200년 동안 예의를 지켜온 나라에서 명나라를 위하여 의리를 지킨 사람은 오직 동계와 김상헌뿐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국가의 영광이지 임금

⁹⁸⁾ 「示諸子」, 150면.

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당시 신하들의 논의를 보아도 동계의 은거는 崇明排淸에 관계된 일임을 알 수 있다.

동계가 72세 되던 해에 어떤 사람이 김상헌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조정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동계는 그렇지 않으니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하였다. 이에 저자는 자기가 남한산성에서 죽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렇게 살아있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아직 숨은 구차하게 보존되고 있지만 마음은 한 덩어리 시체일 뿐이라고 답한다. 즉 우리나라가 오랑캐에게 稱臣한 그날부터 동계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산다는 것은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 의미가 없는 생존이었다.

나라에 큰 변고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임해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은설을 주장했다. 영창대군 옥사가 일어났을 때는 임금에게 차자를 올렸다. 영창대군을 추복하자고 청한 이 「甲寅封事」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만큼 큰 사건이기도 했다. 동계는 관직에 나아가기 전인 임진왜란 당시에 병력을 모으기 위해 倡義하는 完議를 초하기도 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우려 군대를 보내왔을 때에도 공문을 돌려 명나라 군대를 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通文을 만들어 돌렸다. 정은은 명군의 참전과 원조를 再造之恩으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군신 관계를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도 맹렬히 척화를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동계는 유학적 명분론 중에서도 특히 화이론에 철저했으며 투철한 사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주변국가의 형세를 알지 못한 것으로 국가의 안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사고의 틀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장애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의를 지키려 했던 그의 행동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IV. 結論

본고에서 고찰한 동계 정온은 선조와 광해군을 거쳐 인조조까지 산 인물이 다. 그가 살았던 조선 중기는 외적으로는 빈번한 전쟁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반정 등으로 정권이 바뀌는 혼란기였다. 동계의 관직생활을 보면 광해조에는 출사한 후에 공훈을 인정받았고, 인조조에는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되어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 동안 동계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와 시문학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남명학파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시 연구에서는 유배시기의 시를 연구하거나 유배 전후의 의식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계는 理와 氣의 이론 보다는 그것의 실천에 주력하는 남명학파와 理를 중심으로 주리적인 경향을 가지고 敬을 중시한 퇴계학파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절의를 중시하고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인함을 보여 준다.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거의 대부분 관계를 맺으면서 직언과 직간을 거침없이 했던 동계는 좌천과 유배를 당해야만 했다. 호란이 일어난 시기에는 청나라에 대한 척화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의 시는 519제 554 수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 좌천이나 유배, 호란 등과 관련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그가 국가의 중요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에서 당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계기가 되고 있다.

광해 2년 42세의 늦은 나이에 출사한 동계는 경운궁으로의 移御不可論을 주장하다 북청으로 좌천되었다. 이때에 남긴 시편들을 살펴보면 임금을 도와 道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시들을 지었다.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전은설을 펼 것을 줄곧 주장하였고, 영창대군이 사사되자 「甲寅封事」를 올렸다. 이 일로 인하여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제주에 유배되었다. 「甲寅封事」를 올린 후 지은 시에서는 義理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당당함과 임금의 덕을 補導하려는 마음을 드러

내었다.

仁祖反正의 受容과 천명론에서 동계는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道를 따라 행동했던 모습을 살폈다. 광해군의 廢母殺弟는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정당성을 획득하는 대의명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조반정은 천명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출사는 천명을 따른 인조의 신하가 된 것이었다. 그는 광해군에게 임금의 잘못된 점을 면전에서 말하거나 소를 올리는 등 신하의 도리를 다했다. 인조조에도 광해군대와 마찬가지로 인성군에 대한 全恩說을 펼 것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직언과 직간을 서슴지 않았다. 동계에게 있어 인조조에 출사를 한 것은 두 임금을 섬긴 불충이 아니라 천명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동계가 생각하는 大義名分은 당대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동계가 생각하는 大義名分の 正當性은 자리가 정해지면 그것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동계의 천명론은 매우 ‘現實 受容的’인 느낌이 들며, 동계의 天命論은 현실 수용을 정당화하는 감이 있다. 이러한 동계의 현실 수용적인 천명론은 유배지에서부터 양성된 것이며 고난을 겪으면서 쌓인 깨달음이 깊게 느껴진다.

동계는 또한 유배 중에도 신하의 도리를 생각하고 節義를 지키는 유학자적 모습을 보인다. 내적으로는 심성수양에 힘써서 책임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붓을 들어 글로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몇몇 인물들에 대한 시는 역사적 인물들의 드러나지 않은 면밀한 이면을 살피는 그의 歷史認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행동을 위주로 했던 남명학파의 실천적 측면을 읽었다.

호란과 명·청 교체기와 華夷論에서는 동계의 斥和을 중심으로 하는 시들을 고찰하였다. 동계는 명나라에 대해서 가족관계로 이해하였다. 명은 부모의 나라이다. 명의 황제 죽음은 곧 부모의 죽음으로 보았다. 부자의 은혜로 명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동계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가 항복할 것이라는 얘기에 자결을 하였고, 자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는 명나라에서 받아 사용해 온 옥새를 오랑캐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간청하였다. 또 나라에서 황명의 책력을 사용하지 않자 다시는 冊曆을 보지 않으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그의 시는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나 호란 당시 외교적 상황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이것은 崇明排淸의 事大主義的 문제를 떠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피지 못하고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 參 考 文 獻

1. 자료

鄭 蘊, 『桐溪集』, 민족문화추진회간.

『국역 정온 문집』 1,2,3,4, 한국학술정보(주), 민족문화추진회.

『唐詩鑑賞大觀』, 김원중 評釋, 까치, 1993.

『사기열전』 1,2, 김원중 옮김, (주)민음사, 2007.

『宋詩鑑賞大觀』, 김원중 評釋, 까치, 1995.

『詩經集傳』 上, 下,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3.

『晉書』 上, 下, 景仁文化社, 1977.

2. 논문, 단행본, 기타

고정우,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琴章泰, 『韓國儒學史의 理解』, 민족문화사, 2001.

기시모토 미오 외, 김현영 외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김경희,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달진, 『한국 漢詩』 1,2,3, 민음사, 1989.

김만선, 「桐溪 鄭蘊의 學問과 政治活動」,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金相助, 「松江 鄭澈研究-삶의 意識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_____, 「冲庵 金淨의 해도록」, 『耽羅文化研究』 第17號, 1997.

김종진, 「충암 김정 의 문학세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남재철, 『강산 이서구의 삶과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5.

- 呂運弼, 「桐溪 鄭蘊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 제9집, 2004.
- 류성준, 『中國 詩話의 詩論』, 푸른사상, 2003.
- 夫英勤,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東亞人文學』 第十輯, 2006.
- 손중섭, 『다시 옛 詩情을 더듬어』, 태학사, 2003.
- 신병주,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지성사, 2007.
-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 _____,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 梁順芝, 「桐溪 鄭蘊 研究」, 慶尙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5.
-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桐溪 鄭蘊 書院配享의 제주敎育사적 의미」, 『敎育思想 研究』, 제24권 2호, 2009.
- 오수창, 「桐溪 鄭蘊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 『南冥學研究』, 제11집, 2001.
- 이병주, 『韓國 漢詩의 理解』, 민음사, 1987.
- 이종목, 「조선전기 圍籬安置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 _____,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이종목 외,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북스코프, 2011.
-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권필』, 태학사, 1999.
- _____, 『한시 미학 산책』, 솔, 1996.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5.
- 鄭時烈, 「桐溪 鄭蘊의 論三篇 試探」, 『語文學』, 제116집, 2012.
- _____,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韓國思想과 文化』, 제41집, 2012.
- 정일선, 「桐溪 鄭蘊의 政治思想 一考」, 조선대학교 敎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8.
-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 車溶柱, 『韓國 漢文學의 理解』, 경인문화사, 2005.
- 풍국초, 이원길 옮김, 『中國 上下 오천년사』 1.2, (주)신원문화사, 2004.
- 한명기, 「桐溪 鄭蘊의 정치적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南冥學研究論叢』, 제9집, 2001.

ABSTRACT

A Study on Historical Perspective and Poetic Style of Donggye Jeong On

Ko Eun-soon

Donggye Jeong On was born in 1569 and died in 1641. He lived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dynasty there was a series of wars abroad and the leadership was caught in a maelstrom of sudden changes and was constantly confronting dethronement. The professional career of Donggye can be outlined when he was acknowledged by Gwanghaegun and the King Injo by virtue of his fidelity which made him possible to assume some relevant posts.

His literary works, including poetry, feature his personal demotion and banishment, as well as the Manchu war. Many of his works allow us to discover his unique historical perspective. The works of Donggye give a unique view of the situation at that time and historical flow.

Joseon of Gwanghaegun was a hard time for Donggye due to the demotion and banishment. Donggye started his political career at the age of 42. He was a judge of Gyeongseong at that time and he was opposed to Gwanghae's moving in to the Gyeongwoon Palace. His poems written at that time have to do with liege homage. With the death of the Grand Prince Yeongchang in the Year of the Ox, Donggye presented 「Gabinbongsa」. Gwanghaegun was furious about this so he sent Donggye into exile in Jeju. It is found in post 「Gabinbongsa」 literary works. In these literary works, Donggye not only showed his loyalty but also expostulated to the king.

As a Confucian scholar, Donggye always maintained his loyalty of retainer and fidelity in exile. He cultivated his own opinions through reading especially regarding social issues. the result was his literary works, which were made by his writing brush.

In our studies, we have learned that Donggye acted on moral grounds, through this he learned to accept to the enthronement of Injo, and understand his theory of Providence. However, Gwanghaegun went against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by deliberating murder of the Queen and justifying the enthronement of Grance Prince Yeongochang Injo's through moral principles. Ergo, Donggye saw this as a just and great cause. That is to say, the enthronement was by God's will and Donggye was seen as God's will. He contemplated that taking service under a second lord was not a disloyalty, but submission to God's will.

In the period of the Manchu war and the transition of the Ming to Qing, we learned of the rejection of peace and negotiations which was reflected in Donggye's poetry. He considered Ming as a parent country to the Dynasty of Joseon to have a parent-child relationship. He regarded the death of the emperor of Ming as a death of parents. This idea was maintained even when his life was at stake. He attempted suicide when he heard that the King Injo was going to surrender to Qing in Namhansanseong Fortress. After his life was saved, Donggye pleaded not to pass the Royal seal awarded by Ming to the barbarians.

His poetry presents us with perspective on both large and small events in the country, and the Horan diplomatic situation during the Manchu war. It is considered that his literary works serve as a crucial clue to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t that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ing and anti-Qing. His perspective it has its own limits in the sense that Donggye was seized with moral justification and did not conside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